

바랐던
바라던
바라는

20th ANNIVERSARY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주년 기념 자료집



공익인권법재단 공감(共感)은

2004년, 국내 최초의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로 출발했습니다.

지난 20년간 공감은 장애인, 폭력 피해 여성, 이주민과 난민,

아동, 홈리스, 성소수자, 청소노동자,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편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임료 걱정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친구 같은, 만만한 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희망을 그리는 길,

변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공감이 함께 하겠습니다.

인권

구체적 삶의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며

공감

소수자의
입장에 서서

법

법으로 사회 변화를
일구고자 합니다



우리가 과거 바라던, 현재 바라던,
그리고 미래 바라는 공감 이야기

우리가 바라던 공감

- 04 인사말
- 06 공감의 길을 '넌' 사람들
- 13 공감과 길을 '연' 사람들

우리가 바라던 공감

- 22 여는 글
- 24 공감 20년 활동
 - 24 여성인권
 - 30 장애인권
 - 36 빈곤·복지
 - 41 취약노동인권
 - 48 성소수자인권
 - 54 이주민인권
 - 61 국제인권
 - 67 재난과 인권
 - 72 공익법 교육/중개
- 76 숫자로 보는 공감 +20
- 78 공감 2023년 살림살이
- 80 공감을 더 가까이서 만나는 방법

우리가 바라는 공감

- 82 공감의 길을 '잇는' 활동
 - 82 ① 장애
 - 88 ② 노동
 - 90 ③ 국제인권센터
- 94 공감 20주년을 축하합니다
- 98 공감의 길을 '넌' 사람들

공감과 함께하는 사람들

- 106 축하 인사말
- 108 함께하는 사람들
 - 108 이사회
 - 110 후원·자문 위원회
 - 112 구성원
 - 114 기부회원
- 118 공감이 걸어온 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한결같이 달려온 20년

김이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우리나라 최초의 공익변호사단체로 출발한 '공감'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2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지키며 사는 사회,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활동에서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결과 법제도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공감'의 활동은 여러 공익활동을 하는 법률가단체들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러 단체 활동의 모델이 되기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공감은 타인의 즐거움과 고통에 공감하고 타인의 삶을 존중하는 것, 나와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 처지에서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란 역지사지(易之思之), 역지감지(易之感之)의 능력이며, 이는 사람다움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공감'은 공감 능력이 충만한 변호사들이 법과 보편적 인권이라는 준거 하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감'의 활동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난민과 이주민, 노숙인,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노동자의 인권 과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사로 인한 피해자지원,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변화로 겪게 될 구조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 등입니다. 또한 열악한 처지에 있는 공익변호사 자립 지원 사업 운영, 자원 활동가들과 소통, 인권법 캠프 개최 등 교육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익활동을 하는 다른 법률가단체들이나 법률가들과 협력하고 연대하는 틀을 확립하고 임팩트있는 영역에 대한 특화를 모색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공감'의 이러한 활동들은 이에 공감하는 후원자들의 기부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른 여건의 변화로 기부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감의 조직과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부가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은 후원자들과 '공감'이 함께 꿈꾸는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랐던 공감



20th ANNIVERSARY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주년 기념 자료집

두렵지만은 않았던 처음, 그 시작을 기억하며 공감의 길을 ‘낸’ 사람들

공감은 어디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처음 공감에 왔을 때를 기억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에 새삼 놀라는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공감의 시작 즈음에서 인생의 전환점도 만났다는 이들의 이야기, 처음 길을 내던 이야기, ‘바랐던’ 공감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공감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별명을 붙여
연간 보고서에
실은 적어 있었는데요.
그때 별명은
마당쇠였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공감 20년차 | **황필규**

이야기 나누기

저는 공감의
코어(핵심)인
김지림변호사님을
모시고 있는
박영아라고 합니다
(웃음).

공감 15년차 | **박영아**

저의 별명은 ‘쌈장’입니다.
밖에서 경찰과 싸움을 하거나
정치인들과 싸울 때
좀 잘 싸웁니다.
그래서 쌈장을 맡았는데
지금은 그때처럼
잘 싸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온건파가
되었습니다.

공감 18년차 | **장서연**

저는 공감에서
몽글몽글
말랑말랑을
말고 있는
안주영입니다.
이렇게
건조한 사람들
속에서
가장 소프트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공감 16년차 | **안주영**



이야기 길잡이 김지림 백소윤 임기화

왼쪽부터 김지림 황필규 박영아 장서연 안주영

첫 번째 키워드 #인연

공감에서 일을 막 시작했을 때의 만남들

장서연 저는 2007년부터 공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연수원 수료하고 검사로 1년 일하다가 왜 검사를 그만두고 공감에 왔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답변이 조금씩 달라진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축흥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공부하고 연수원 다닐 때는 공익 변호사 단체가 흔치 않았기 때문에 공익 변호사에 대한 계획이나 미래 같은 것을 상상해 보지 않았었어요. 어느 날 검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마음이 뒤틀렸는지 연수원 공채 게시판에 들어가서 봤는데 그때 공감 공채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면접을 세 번 봤어요. 구성원 전체 면접을 공감 근처 국밥집에서 전체 구성원이 함께 밥을 먹으며 진행했어요. 굉장히 산만하고 저한테 질문해놓고는 제 답변을 제대로 듣는 등 마는 등 분위기가 안 좋아서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결론이 안 나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하고 1대 1로 한 번 더 면접을 봤죠. 당시 박원순 전 시장님도 바로 나오지 말고 조금 더 검사 일을 하다 나오라 왜 이걸 하느냐고 했을 때 뭔가 강력한 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소수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일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거기서 더 묻지 않고 한 10분 만에 면접이 끝났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면접관이 윤정숙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님이었는데 아마

박 전 서울시장님한테 커밍아웃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윤정숙 이사님이 ‘그럼 더 잘 됐죠’ 이렇게 반응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마지막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비하인드로는 당시에 지원자가 저 혼자였던 거?!(웃음)

박영아 연수원 시기 땀 알고 지내지 못했는데, 공감의 창립멤버인 염형국 변호사님이 사실 사법연수원에서 같은 반이었어요. 사법연수원 수료할 즈음 염변호사님이 아름다운재단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월급이 매우 낮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가 셋인데 어쩌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공감에 오게 된 이유는 하나로 정리하기 어렵긴 하지만 변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어느 한 편에서 서서 무언가 얻어내는 일을 한다면 더 공감할 수 있는 편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에 직장을 여러 번 옮겼었는데, 공감에 지원하면서 처음으로 아무런 가식 없이 진심을 담아 지원서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4대 1의 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채용된 후에 변호사가 된 후 처음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입니다.

황필규 저는 우여곡절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공감과 비슷한 걸 만들고 그런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고요. 연수원 1년 지날 때 공감이 생겼고 자주 들락거렸던 것 같아요. 처음 거의 출범식 비슷하게 하면서 선배들과의 대화할 때도 전화해서 후배가 가도 괜찮냐라고 해서 쫓아갔던 기억이 있고 거기서 선배들보다도 더 말을 많이 해서 튀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때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에 갔을 때마다 구성원 한 분씩 오시라고 면접 봐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구성원과 면접을 봤어요. (질문: 누가 누구 면접을 봤다구요?) 그분들이 저를 면접 본 거죠. 제가 부탁을 드려서(웃음).

면접을 보고 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었지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공익변호사 단체이고 하니까 내가 들어간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다 환영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웃음). 그리고 3개월 후에 '이 사람을 우리가 안 받아주면 어딜 가겠냐'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인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주영 저는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저는 작은 환경단체에서 일하다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우연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제가 그동안 해오던 일하고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었고 사람을 찾는다는 것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다행히도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가 6월이었는데 철쭉이 피었고 창덕궁 담장이 보이고 하늘은 맑고 너무 기분 좋게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면접 보시는 분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망했다. 나는 저러지 못할 것 같은데...'라는 걱정을 안고 면접장에 들어갔어요. 정말 너무 놀랐던 게 그때 전체 구성원 한 7분이 앉아 계셨어요. 정말 심장이 목에서 뛰는 것 같았어요.

그때 장변호사님이 긴장을 풀어주려고 쓸데없는 질문을 한 번씩 던져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면접 전형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면접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연락을 받고 저는 긴장한 상태에서 사랑니를 뽑으러 갔었거든요. 그때 부재중 전화가 와있길래 봤더니 다른 한 분이 안 오시겠다고 하여 다행스럽게 제가 공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울림 떨림과 감동을 전할 수 있었던 사건들

장서연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사건의 당사자들이 우리 사회에 울림을 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학생 운동이나 인권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감에 와서 새롭게 만났던 분야나 당사자들이 있어요. 성소수자 중에서도 트랜스젠더와 처음 커밍아웃한 당사자들을 만났고 또 HIV 감염인이나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들 처음 만났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제도적인 문제점들과 그 문제들로 인해 겪고 있는 인권 침해, 차별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하고 소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싸워왔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 하나하나의 목소리가 이 사회의 울림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으면, 2014년에 서울시민 인권현장 때 성소수자 단체들이 서울시청을 점거한 역사적 사건이요. 그게 어느덧 10년이 됐는데 많은 단체들과 성소수자 당사자들 커뮤니티가 한국 사회에서 얼굴을 다 드러내고 어떤 공공기관을 점거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때 시민사회단체들이 굉장히 연대를 강하게 해 주셨고 그 사건 이후로는 어느 정도 한국 사회에서 인권을 얘기하는데 성소수자 인권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겠구나라는 공감대가 적어도 시민사회에서는 좀 단단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 싸움이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 그때 사건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박영아 전 공감에 들어오자마자 내부고발

자, 군 의문사와 난민 사건들을 맡으면서 금방 스스로가 가진 한계들을 절감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군의문사 사건의 경우 거의 동시 또는 비슷한 시기에 3건을 진행했어요. 모두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였지만 자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이 거부된 사건이었어요. 3건 중 2건은 제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승소했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건은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결국 전원 합의체 판결로 승소했습니다. 그 때 사람을 들었다 놔다 하는 것은 이런 경우를 말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앞선 두 사건에서 대법원이 군대에 보낸 자식을 억울하게 잃은 부모의 마음을 전혀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었고, 승소했다 하더라도 사망한 자식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 사실은 변함없어서 10년 지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황필규 공감 활동 20년 동안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을 짚자면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일 것 같아요. 굉장히 정신없이 현장에서 일을 했었고 그게 꼭 법률적인 조언을 하고 소송을 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피해자들과 함께 한다는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을 하고 몇 달 후에 우연히 김애란 작가의 글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우리 거짓말하지 말자. 오히려 공감이라는 것은 밖에서 옆으로 옆에서 곁으로 다가가는 과정이다' 라는 취지의 어떤 글이었고 특히 처음 봤을 때 평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하고자 했던 게 바로 이걸데 이렇게 잘 표현을 해냈구나라는 느낌

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몇 번에 걸쳐서 볼 때마다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유가족분이 SNS에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짧은 한 문장으로 '이 양반이 보니까 어떨 때는 유가족들보다 더 흥분해서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이 하다가도 어떨 때는 어떻게 유가족들한테 이렇게 냉정할 수 있지? 굉장히 냉정하게 군다'고 하셨는데 그 유가족분의 말이 제가 표현하는 공감의 방식이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웬지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을 다 풀어준 듯 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울림, 진동 이게 결국은 교감인 것 같아요.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고 한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깨닫고 그걸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의 과정은 끝이 없고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느낌을 계속 가졌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변화

공감과 나, 주고받는 영향

박영아 저는 사실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편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누구한테 연락하거나 인간관계를 넓히려려고 노력하지 않는 편인데 공감이 와서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굉장히 크게 깨닫게 됐어요.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여전히 먼저 연락하거나 용건이 없으면 연락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 그 보다는 사람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공감에서 일하다 보면 사실 사람 말고는 자원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관계의 중요성들을 좀 많이 깨

닫게 된 것 같아요. 공감을 찾아오시는 분들, 저희가 지원하는 분들, 공감과 뜻을 같이 하는 자원활동가, 같이 일하는 단체 활동가분들 그리고 공감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다 너무 소중하고 또 너무나 필요한 느낌을 하루하루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별로 사람들 이랑 교류 원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었지만 제가 존경하는 분들은 다 공감에 와서 만났습니다.

황필규 공감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다고 하는 건 과한 표현이고, 다만 공익변호사 개념 혹은 공익변호사 생태계에 가져온 변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변호사는 인권과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가치를 전업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 집단이 있다는 것이 가지는 파급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일에 관심이 있고 이 일을 하고자 한다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 왔던 것이 신뢰를 쌓고 확산 효과를 가져오는 과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생긴 공익변호사 단체들도 똑같은 역할을 다양한 공간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지지

우리의 '뒷배'를 만나기 위해

김지림 안주영 실장님은 자기소개 때 말랑말랑을 맡으셨다고 했는데 그 말랑말랑의 끝판왕이 최근에 발행하고 있는 '감감유소식'의 '감이' 일 것 같아요. '감이'의 탄생이 궁금합니다.



안주영 공감 홍보팀에서 먼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의 뉴스레터가 공감의 활동에만 치중되어서 다른 공감의 이야기들을 전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다른 형식으로 공감의 소식을 전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화를 좋아해서 '웹툰 후기처럼 간단히 그리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했더니 옆에 계신 장변님께서 '어디 한번 해봐'라고 했고 강은희 변호사님이 '감이'는 어때요?'라고 해서 응원을 받고 그림을 그렸는데 다행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가끔 낱이라는 오해도 받기도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감감유소식은 공감 소식들 중 잘 안 보이는 소식들을 전하는 게 목표입니다. 생활툰을 가장한 목적이 있는 웹툰 정도가 될까요?



안주영 실장님이 그린 감감유소식 캐릭터 '감이'

김지림 안실장님께서 기부회원님들과 소통을 담당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나눔 밥상'을 통해 기부회원님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기부회원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안주영 한 분을 떠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매년 공감 나눔 밥상 할 때마다 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공감을 소개해 주시려고 지인분과 함께 와주시는 분들, 매번 간식을 채워주시는 분도 계시요. 또 가족이 모두 기부를 하고 계시는 경우도 많아졌고요. 저희는 이름이랑 숫자로 보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 분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어서 나눔밥상이라는 자리를 마련하고 구성원들도 많이 참석해서 아시겠지만 약간 보약 먹는 기분이잖아요. 좋은 얘기만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잡지 못하는 감동의 포인트들을 더 많이 주시는 거라 한 분만 찾기는 너무 어려웠고 그 순간순간마다 되게 다르게 감동하고 다르게 이야기로 풀어가고 싶은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키워드 #미래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박영아 제가 공감에 처음 들어왔을 때 포부가 '쫓겨날 때까지 공감에 있겠다' 이었는데 10년 후에도 공감에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황필규 최근 감시자본주의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상황은 변화하고 있는데 인권이나 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 속도를 전혀 못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괴리와 간극이 생기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시대를 앞서가지 못하더라도 시대에 발맞춰 갈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는 좀 더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지림 20년간 쉽 없이 달려온 공감입니다. 앞으로 10년 후, 공감 30주년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지 우리 공감의 구성원들과 기부회원님들도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공감 미래에 기대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얘기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를 하렵니다. 다들 감사드려요.

안주영 느리지만 느리지 않게 부지런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서연 저도 지금처럼 10년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아 공감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해주시는 분들이 더욱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황필규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따뜻한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면서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연대활동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앞으로를 약속하며 공감과 길을 '언' 사람들

공감의 시작과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 해온 분들과 다양한 현장활동 이야기를 풀어 앞으로의 공감이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을 고민하고, 그 길을 함께할 소중한 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인사를 주고받고자 합니다. 초기 파견사업을 통해 공익변호사 단체 공감과 이주여성인권 단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두 단체가 이어온 인연속, 공익변호사의 공익법활동과 이주여성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이 만나 빛을 발했던 순간들을 듣고 앞으로를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공감에서 변호사로 일했던 소라미입니다. 2019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임상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 교수 | 소라미

이야기 나눔이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허오영숙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일했고요. 2017년부터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 허오영숙



이야기 길잡이

백소윤

왼쪽부터 백소윤 허오영숙 소라미

현장으로 다가간 첫 걸음 - 공익변호사 파견 활동

소라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이하_이여인티)와는 몇 번의 처음이 반복되면서 관계가 맺어진 것 같아요. 공감이 2004년도에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 NGO로 처음 출발했지만 처음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이 컸어요. 공익활동만 전업하는 변호사들이 모여 일을 해보자고 만들어진 곳인데 같이 일 시작한 4명의 변호사도 새내기였고 뭘 알려줄 선배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우리가 많이 부족하니까 현장에서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가서 직접 보고 직접 듣고 배우고, 일을 찾아 나서보자 이렇게 시작 된거죠. 우리끼리 사무실에 모여서 앉아있는 것보다 우리 사회 소수자들을 위해 바빠 움직이는 단체들, 인권 단체에 가면 할 일들이 많이 보이지 않겠냐 해서 그 때 시작한 첫 사업이 공익 변호사 파견 사업이었습니다. 그 때 파견 나갔던 단체 중 하나가 이여인티였습니다.

허오영숙

저는 2007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전에도 시민사회 영역, 여성운동 영역에 관심도 많았고 활동도 했었기 때문에 이미 공감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감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는 건 몰랐고, 공익변호사 그룹이 탄생 했다더라, 그리고 단체랑 현장에서 협업한다더라, 그 정도로 들어 알고 있었죠.

이여인티에서 2007년에 활동을 시작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미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파트너 중 하나이더라고요. 오래전이지만 기억나는 소라미 변호사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이주민 체류권안정을 위한 연대체를 꾸려 같이 활동할 때, 이여인티 사무실이 언덕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3층인가 그랬는데 소라미 변호사가 만삭의 몸으로 힘들게 계단을 올라오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어요. 공감이 “현장에 있다”, “현장과 같이 한다”는 게 법률 자문하거나 하는 식이 아니라 그냥 현장 단체들이랑 섞여 같이 회의하고 그러면서 같이 의제 만들어가고, 사건도 같이 뛰어 들고 그런 모습의 상징을 보여주는 것. 제 기억에 소라미변호사 하면 그 장면이 남아 있어요.

백소윤

저는 2019년 이여인티 연대사업을 이어받으면서, 제가 사실 이주 여성 영역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주저했어요.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 파견 사업하면서 처음 인연을 맺었어요. 사무실에서 주는 일하고, 밥도 같이 해 먹고, 일하시는 거 옆에서 귀동냥하고 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었죠. 변호사가 현장을 배울 기회가 쉽게 생기는 게 아닌데 공감이 늘 현장에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저한테도 귀한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

연대의 기록, 연대의 힘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허오영숙

제도 변화와 관련해서는 이주여성 상담소 설치 근거를 법제화해서 지금의 이주여성 상담소들이 있게 된 여러 가지 법 제정 운동 과정에서 같이 법안 만들고 토론회 같이 기획하고 했던 것이 기억에 남네요.

사건은 단체들이 일명 ‘전주사건’으로 명명한 사건이죠. 출산경력 미고지를 이유로 한국인 배우자가 이주여성 상대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어요. 처음 그 사건의 조각이 드러난 건 시아버지에 의한 성폭력 때문이었어요. 결혼 이주여성이 남편의 계부로부터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당하고도 신고를 못하던 중, 어렵게 친구를 통해서 경찰에 신고한 뒤 그 다음에 심터에 입소하게 됐어요. 그 뒤 남편의 계부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진행해서 유죄판결이 나왔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이 이주여성이 혼전 출산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 이분이 실제로 출신국 현지에서 출산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됐죠. 근데 그 출산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건지에 대해서 물으니 이 여성이 나고 자란 곳의 악습이 배경에 있었죠. 이 분은 산악지대의 소수민족 출신이었어요. 그 지역에는 그 당시까지도 소수민족들 사이에 납치혼이라고 하는 악습이 여전히 있었고 그 악습의 피해자로서 납치를 당해서 출산을 하게 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당시 나이가 만

13세였다고 해요. 사건이 다른 국면을 맞았죠. 엄연히 아동기에 벌어진 성폭력에 의한 출산인데 이것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였어요. 무엇보다 앞선 시부의 성폭력 사건하고 법적으로는 별도의 사건일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맥락이나 책임과 별개로 해서 성폭력 피해자인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한국에서 내쫓기는 상황을 두고 보는 게 말이 되냐 문제제기가 필요했죠. 그 과정에서 공동변호인단이 꾸려지고 공감이랑 같이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소라미

사건이 주목 받으며 한국사회에 이 정도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 결혼이주여성의 열악한 상황을 알릴 수 있었어요. 판결이 날 때마다 토론회도 했었고 대법원에서 완전히 이기진 못했지만 파기환송 후 대법원 판결에서는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 전력을 말하지 않았다고 당연히 혼인 취소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이후에 재파기환송심에서 끝내 이기지 못했던 건 아쉽죠.



이주여성 사회통합 의무화 정책에 대한 공동대응기자회견



현장 단체와 공익변호사의 관계, 공익변호사 단체의 역할

소라미

저나 공익변호사들에게 현장은 '선생님'입니다. 제가 이주여성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아는 것도 없었고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이런 거 사실 배운 적도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다짜고짜 얘기 듣고 이주여성 당사자들을 만났어요. 뭐가 문제인지 활동가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법과 제도를 뭘 바꿔야 되는지도 고민할 수 있었던 큰 배움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중에 법조인으로 일을 할 때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이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중 한 가지가 겨울방학 공익법실무실습입니다. 여러 공익기관 현장으로 나가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뭘 느끼는지 다 알 순 없지만 언제 현장 단체에 가서 당사자들을 만나보고 뭐가 문제인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겠어요. 학생들이 로스쿨 나와서 법조인 생활을 하면 법과 판례는 고정불변인 것처럼 절대 진리인 것처럼 테두리 안에 갇혀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법도 바뀌고 판례도 바뀐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누가 어떻게 바꾸는 것이냐” 묻는다면, 현장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법을 바꾸고 판례를 바꾸는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당사자들과 현장의 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고 그에 대한 판례 평석이라든지 학술 논문도 뒤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관련 문제들을 한국 사회에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허오영숙

당시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를 받았는데, 2천장 넘게 받았었어요. '시민들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같이 할 수 있었던 것도 일선에서 지원하는 센터나 상담소 이런 적극적인 역할들을 해주신 덕이라고 봅니다. 한편으로 참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때도 있어요. 선주민 사이에서는 이혼으로 관계 정리하면 끝났을 걸 한국사회의 적대적 감정, '징벌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될까를 생각해 봐요. 결국 언제든 박탈할 수 있는 '체류자격' 부여제도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결혼 이주여성의 체류 문제는 법적 다툼을 멈출 수 없어요. 법적 투쟁도 이어가지만, 사회인식을 바꾸기 위한 시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허오영숙

법이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뭔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사후적으로 대응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현장은 또 바뀔 수도 있는데 법이나 제도는 여전히 전의 것을 고수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또 현실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하나 이런 고민을 깊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별 사건을 진행해서 선례를 다수 남기는 것도 중요한데 동시에 한 단계 나아가 그거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현장에 공익변호사들이 함께하고 계셔서 정말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공감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특별해요. 다른 공익 변호사분들이 주로 개별 사건에 같이 하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자문도 해주시고 그런다고 한다면 공감은 현장 토론이 필요하거나 현장 실태를 조금 알아야 대응책을 만들 수 있겠다 싶을 때 현장 바닥에서부터 같이 하는 거를 기꺼이 제안할 수 있고 또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제안에 기꺼이 같이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뭔가 사건으로 가지 않을 상태인데 분명 사회적 모순은 있는 것 같은 그 상태에서도 의논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죠. 그 경험과 믿음을 적어도 이여인터와 공감은 같이 쌓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라미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많죠. 예를 들면 인신매매 피해를 입고 성산업으로 유입된 여성들이 있어요. 그 피해를 어떤 식으로든 문제 제기하고 공론화해야 이게 자꾸 알려져서 이런 게 부족하구나 이런 인식이

문제구나 이런 법과 제도를 바꿔야겠구나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런데 이 분들 입장에서는 피해사실을 알렸을 때 잘못하면 오히려 자신의 존재가 드러남으로써 더 큰 피해나 불이익을 입을 상황에 놓이게 될테니 경험을 사건화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게 항상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여인터든 관계 단체에서 여성들 피해를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했지만, 이후에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을 하다가도 절차가 지연되니 지치고 힘들어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잡고 마무리하거나 공론화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죠.

결국 젠더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에게 있어 안전한 체류를 보장해 주지 않는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이 된 게 성과라면 성과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게 매력적인 것 같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허오영숙

최근 현장이 당면한 위험 상황 중 하나는 미등록 체류 이주여성들의 쉼터 입소 문제입니다. 2018년에 여성가족부의 지침이 변화되면서 쉼터 입소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가능하도록 변화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지침이 유지될지 지켜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젠더 기반 폭력 피해 판단에서도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고 유형력 매개되지 않은 또는 정서적 학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폭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현장에서 목격할 때... 그동안 만들어 쌓은 것들이 쉽게 무너지거나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열심히 해야겠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이주여성과 관련해서, 2014년에 법무부가 비자심사에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결혼 비자를 받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조건을 잘 만들어 입국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혼인관계를 가지면서도 우회 경로인 관광비자나 이런 걸로 오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여성들이 이중의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결혼 비자로 그나마 보장된 권리를 주장도 못하게 되고,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니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같이 논의 하고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연대로 쌓은 신뢰,
연대로 쌓인 힘으로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가길**

허오영숙

이여인터도 2년 전에 20주년이었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시작해서 비슷한 현장에서 오랫동안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어 굉장히 좋고 감사합니다. 저는 개별적으로는 공감의 다른 구성원들도 알고 지냈긴 하지만 그래도 소라미 변호사부터 이주여성인권 이슈와 관련해서는 백소운 변호사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오랜 시간 같이 해올 수 있었던 게, 공감이 갖고 있었던 초심이 20년 동안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해요.



초심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고 그동안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을 모든 공감 구성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소라미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공감에서 일을 하는 동안 이여인터랑 어떤 일을 했는지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뜻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여인터를 응원하는 인사부터 하고 싶어요.

생각해 보면 기억나는 사건들은 다 이런 거예요. 대전, 결혼 중개업자가 이주여성 예비 신부를 성폭력 했던 사건을 지원한 사례. 제주도, 형부한테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필리핀 이주여성을 지원한 사건. 지역 사건이 많아요. 지역에서 대응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이여인터로 연락을 하는 거죠. 공감은 법률대리인단 구성과 법정싸움을 맡고, 법정 바깥의 싸움은 이여인터를 믿으면 되죠. 전국에 뜻을 같이하는 단체를 모으고 기자회견, 토론회, 계속 바깥에서 공론화를 맡아주셨어요. 그 안에서 또 열심히 소송하며 당사자, 단체, 정부 측 등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더 유의미한 사회 변화로 만들어 갈 것인지를 함께 이야기해요. 진짜 신뢰하는 파트너였던 것 같아요.

이여인터가 굳건하게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이 있지만 그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여인터와 함께하는 공감이 소중한데, 제가 했던 역할은 제 개인의 역할이 아니라 공감의 변호사로서 공감이 가지고 있는 현장과 연대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고 활동했던 걸음들이었어요. 앞으로도 그런 공감의 역할은 현장 단체에게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인권위 앞에서 국제결혼폐지촉구 기자회견하는 사진을 보고 18년 전에 내가 해온 일, 내가 있었던 자리에 공감변호사가 있는 걸 보고 혼났어요.

허오영숙

이주 여성인권센터랑 공감이란 같이 처음한 게 2006년 국제결혼 중개업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 진정이더라고요. 그때 작성을 소라미 변호사가 했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백소운 변호사가 작성을 했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라미

마지막으로 공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활동 원칙 중에 하나는 공감이 그 모든 성과를 공감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 같은 공익 단체와 또 같이 했던 다른 공익 변호사들과 그 성과를 함께 하려고 항상 경계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도 공감이 가지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공감이 가고자 하는 길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야 함께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사람들이 생각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백소운

오랜 인연 속에서 꽃 핀 활동이 중요한 의제들을 수면위로 올리는 파도로 이어져왔네요. 공감이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웨이브'를 탈 수 있는 건 다 덕분입니다. 오래 이어져 온 활동의 연장선을 이어 그을 수 있다는 것에 다시 감사 인사를 드리며, 또 현장에서 뵙길 바랍니다.

처음 길을 내는 것은 공감에 낫설지 않습니다.

2004년, 4명의 새내기 변호사들은 국내에서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형태의 법률가 단체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직 자유에 대한 갈망의 기억이 더 컸던 시기, 목소리조차 내기 힘든 소수자들의 인권에 주목하였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여성이거나 성적 지향이 다르거나 빈곤하거나 이주해왔거나 하는 상황이 사회적, 제도적 이유로 취약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소송과 제도개선으로 바꾸어가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2004년에는 ‘공익변호사’란 단어 자체가 생소했는데, 현재 법조인을 지망하는 많은 이들이 고려하는 진로로서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4명으로 출발한 공감은 12명으로 늘어났고, 2013년 아름다운 재단으로부터의 독립을 거쳐 활동영역별 팀과 국제인권센터의 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여정은 주변 풍경에 익숙해질 무렵 다시 낯선 지형에 들어서는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인권침해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했습니다. 불안정 노동형태의 확산이 노동권의 공백을 초래하는 문제에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 재난현장이 가장 첨예하게 인권이 문제되는 상황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과제에 도전했습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는 일 또한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뜻을 같이 하고, 함께 일할 이들을 구했습니다. 공감은 창립 초기부터 국내외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과 널리 연대 및 협력을 해왔습니다. 공익변호사 양성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과 법조공익모임 나누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이 대표적입니다.

2024년 현재, 공감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감은 언제나 현장을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현장에 있다 보면 인권의 문제가 서로 교차되고 연결된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앞으로 그동안 여러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인권이 교차하는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빅데이터 등 사회와 환경의 변화가 가져오는 새로운 국면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들을 포착하고, 법적인 개입이 필요한 지점들을 찾아내어 권리구제에 힘쓰고자 합니다.

지난 20년을 함께해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아가는 길 또한 앞서거나 뒤서거나 같이 밝혀 주신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공익인권법재단 올림

우리가 바라던 공감



20th ANNIVERSARY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주년 기념 자료집

여성 인권

공감은 법이 담고 있지 못한
성매매여성을 둘러싼 현실,
성매매산업 안팎의 사람들과 제도들,
매일 새롭게 발생하는 수많은 폭력과 불화에 대해,
법이 지니는 한계와 가능성을 짚고 현장 활동에 동참하며
함께 고민하는 든든한 동료입니다.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름 / 헤진



폭력과 착취로부터의 자유, 여성이 인간으로 사는 출발점

: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경험 당사자 법률 지원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신체촬영 및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

공감은 굳건한 젠더권력 차이와 젠더 규범으로 인해 발생하고, 은폐되고, 반복되는 모든 폭력과 착취의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아동, 장애 여성, 이주 여성, 성매매 경험 당사자, 성소수자까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여성'들이 겪는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등 여러 유형의 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가능성을 모색하고, 피해자 지원 기관 및 활동가와 함께 주요 사건들의 공론화와 사회적 책임을 묻는 활동도 함께 해왔습니다.

- 2006 • 예술흥행(E-6-2) 비자 입국 이주여성 피해자 지원 및 성산업 유입 실태조사
- 2008 • 군대 내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공동변호인단
- 2010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해결 프로젝트- 장애여성 성폭력 판결 분석 (1차)
- 2012 • 장애인 피해자 사법절차 참여권 연구팀 활동(성폭력범죄 피해아동과 장애인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 2014 • 장애인 성폭력 판례분석 프로젝트(2차)
〈장애인 성폭력 무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 유죄 판결을 위한 활용서〉 제작, 배포
- 2014~2019 • 르노 삼성 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민형사 법률지원
- 2016 • 성매매 업소 업주로부터 상습 강제추행 피해 입은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여성 고소 대리
- 2018 • 미국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청구 소송 대리인단
• 친족 성폭력 피해 입은 필리핀 여성 대리, 가해자 유죄 판결
- 2020 • 성매매 여성이 사기죄 피해를 신고하였으나 신고 누락 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인지한 경찰 수사 대응
- 2021 • 트랜스젠더 성매매 경험 당사자 상대 상해 건 피해자 대리
- 2022~ 2023 • 성매매 과정 중 발생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대리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인지 수사 대응

디지털 성폭력 사건 지원 및 예방 교육

: 온라인 공간의 특수성 반영한
피해 지원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기술 발달로 정보통신 매체 접근성과 촬영·편집의 용이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이용한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도 다변화 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반성폭력 운동에 함께 하는 피해자 지원 단체들을 조력하여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 피해 처벌을 위한 제도적 한계를 검토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한편 디지털 성산업 근절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수요차단을 위한 예방교육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 2019~ • 비공개촬영회 참가 모델, 비동의 유포 피해자들 법률지원
- 2020 • 아동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웹캠투비디오' 건 대응, 관련 판결 분석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양형기준안 의견서 제출
- 토론회 '양형부당을 말하다-피해자관점에서 본 양형기준' 발표
- 2020~2021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피해자 대리인단 활동
- 형사절차 지원,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개명 절차 등 지원
- 2021 •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 매뉴얼> 공동 집필
- 2021~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군 전담 교관 성인지 교육 및 표준 강의안 개발, 군법무관, 양성평등전담관 등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지원 실무 교육
- 2021~2022 •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전문위, 자문위 활동
- 2020~2021 • 경기도 소재 공장 화장실 불법촬영 피해자 고소 대리, 유죄 판결
- 외국인근로자 재입국특례제도 피해자 특례 제도 개편
- 2022~2023 • 충청북도 소재 농장 기사서 불법촬영 피해자 및 조력자 지원, 고소 대리, 유죄 판결
- 조력자 상대 명예훼손 고소 변론, 불기소 처분
- 2022 • 경기도 소재, 아파트 복도 불법촬영 목적 주거침입 사건 불기소 처분 대응
- 2023 • 수사기관의 성매매 단속 중 불법 채증(불법촬영 및 비동의 유포) 국가인권위 인권 침해 진정 인정

성 인종 차별에 맞서는 이주여성의 편에 서다

공감은 2004년 활동 초기부터 한국이주여성인권 센터에 변호사를 파견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혼인과 이혼, 가정폭력 상담, 이주배경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이주여성인권 영역에서, 국제결혼의 구조적 문제인 중개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 입법 운동을 시작했고 최근에는 법적 공백 속 난무하는 차별 혐오적 온라인 불법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체류자격을 악용해 부당한 인권침해, 젠더기반 폭력 피해를 입고도 적절한 피해자지원절차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적극 문제 삼고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지원에 힘을 썼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판례 분석 결과 보고회

- 2005 • 국제결혼중개시스템 현지조사 및 국제결혼 중개 구조 개선을 위한 토론회
- 2005~2012 • 국제결혼 중개 구조 개선을 위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을 위한 활동
- 2006 • 성 인종 차별적인 국제결혼 광고에 대한 '선의를 파파라치' 캠페인 진행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2007 • 지방자치단체의 농촌 총각 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에 대한 국민 감사 청구
- 2007~2009 • 한국인 불임 부부에 의해 대리모로 이용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손해배상청구 및 양육자변경청구 일부 승소
- 2008 • 한국인 남성의 정신장애 사실을 은폐한 국제결혼 중개 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 2013 •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알몸 신체검사 강제추행죄 고소 대리, 유죄 판결
- 2014 • 시부의 성폭력 피해 입은 결혼이주여성 혼인취소소송 공동대리인단
- 2015 •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여성의 인신매매 피해 해결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 활동
- 인신매매 피해자대응 정책 비교 연구를 위한 일본 현지 조사
- 2016 •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성폭력 실태조사
- 2018~2021 •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여성 성매매 강요 및 업주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응
- 이주여성에게 성매매 강요 및 추행한 업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 2021~2022 • 문경시, 베트남 유학생 대상 인구증가시책 홍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성 인종 차별 인정
- 2023~ • 성 인종 차별적 국제결혼지원 지자체 조례 전수 조사 및 폐지 연구사업,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성평등·성인지적 정책 및 제도 도입을 위한 실태 조사 및 연구 활동

성평등 성인지적 정책은 다양한 정체성과 역할을 지닌 ‘여성들’이 처한 구체적 상황들 속에서 구상되어야 합니다.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피해자다움과 같은 젠더 규범을 전제로한 공공 정책과 제도는 그 자체로 차별적일 뿐 아니라 성차별을 더 공고하게 만들어 악순환의 동력이 되어왔습니다. 공감은 이러한 악순환을 멈추고 성평등하고 성인지적인 정책이 가정, 노동현장, 피해자지원 정책, 형사법 체계 내 등에 고루 확산되기를 바라며 실태 조사 및 연구 활동에서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여성의 권리가 보편적 인권의 의제로서 공공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현장에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 2006 • 예술흥행 비자 입국 이주여성의 성산업 유입 실태조사
- 2011 • 여성노동자의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아동성폭력 판례 분석 연구 참여
- 2010~2018 • 안전한 이주보장을 위한 ‘인신매매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활동
- 2012~2018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개선을 위한 법 개정 활동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지원
- 2013 • 국가인권위원회 발주 ‘진료과정의 성희롱 실태조사와 예방기준안 마련’ 연구
• 여성의 임신중단, 재생산권 논의로의 접근 가능성 논의 참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낙태 규제 법제에 대한 입법 평가 자문
- 2013~2015 • 단순성매매 처벌조항 위헌법률심판 대응 및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법제 개선을 위한 활동
- 2013~2014 • 낙태죄로 기소된 여성 공동변호인단
• 낙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연속 포럼 공동 개최
- 2017 • 모자보건법 제14조 해석과 개정방안 토론회 발표
- 2017~2020 • 낙태죄 위헌소원 공동대리인단(헌법불합치 결정)
- 2020~ • 성판매 여성 비범죄화를 위한 방안 모색
- 2021 • 성 인종 차별적 국제결혼중개 온라인 불법광고 모니터링
- 2022 • 폭력피해 이주여성 판례 분석 연구 사업
- 2023 • 성 인종 차별적 국제결혼지원 지자체 조례 전수 조사 및 폐지 연구사업, 캠페인

초록불

디지털 성범죄 :

일련의 가해들이 연결된
집단성폭행, 재유포자 엄벌 필요

[광주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고단 6722]

불법촬영이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처벌규정이 정비되기까지 많은 사건이 공론화되어야 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것 때문에 피해인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스튜디오 비공개 사진 촬영회에 참가한 모델이 무분별한 사진 유포로 큰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고 있던 사건이 그랬다. 피해의 심각성에 무감각한 재판부를 움직인 것은 법정에 나선 피해자였다. 증인석에 앉아 개인신상 공개로 온라인 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 개명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학업 중단의 피해, 무엇보다 지속되는 피해 상황을 알렸다. 재유포자의 경우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이 없어 불법성이 낮다는 피고인측 주장이 쉽게 수용되곤 했는데, 피해자측에서는 온라인 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의 심각함과 지속성을 알렸다. 재유포자에 대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재판부가 언급한 양형 이유는 피해자가 견디는 시간에 대한 짝막한 공감일까, 건조한 위로에서 사건 해결의 의미와 정의를 묻는다. “디지털성범죄에 있어, 누군가는 오프라인에서 불법촬영, 협박, 강간, 강제추행 등을 통해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해 배포하고 또 누군가는 이를 소비하거나 다시 유포하는 등으로 일련의 가해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확대 재생산되며, 이는 결국 다수의 개인이 한사람에게 가하는 집단 성폭행에 다름 아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디지털 집단성폭행의 공범으로 피해자에게 쉽게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빨간불

농장 기숙사에서 성폭력 피해 입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미조치가 문제 없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다를 리 없겠으나 현실에서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제한과 사업장 이동 횟수의 제한 등 제도로 인한 약점은 이주노동자를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킨다. 지역의 작은 농장에서 일하던 이주여성은 농장 옆 기숙사에서 생활했다. 기숙사는 한국인 지배인과 함께 사용했는데, 그는 처음 피해자를 만난 날부터 수시로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 급기야 심야에 화장실에 가려던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가 있고,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사업주는 피해자에게 “기숙사를 옮기겠냐” 물었다. 피해자는 차마 더 열악한 기숙사를 택하지 못하고 계속 가해자와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 후 피해자는 동일한 가해자에 의해 불법촬영 피해까지 입고서야 경찰 신고를 했고 가해자는 체포되었다. 피해자를 대리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하며, 직접 가해자는 물론 피해 신고를 받고도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 분리, 보호 등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사업주의 방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고소를 추가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업주의 미조치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조치”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의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주배경 피해자의 체류 및 고용 불안정은 반복된 사건의 원인이자 결과다. 사건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기능을 잃고 사회구조적 문제를 조명하지 못할 때 더 이상 사건은 이주민 개인만의 일이 아니다.

공감 20년 활동

장애 인권

공감 변호사의 요청으로
한국 형사소송 최초로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할
조력인이 법정에 배치되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 배낭을 메고 청바지에 흰 셔츠 차림으로 달려와
법정에서 당당하게 변론하던 모습이
더 '우리 편' 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해 '우리 변호사'가 되어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부터 개정, 적용 선례까지

공감은 2003년 58개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자문을 시작으로 법 시행 후 모니터링,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 및 차별구제청구소송을 대리하며 적극적으로 관련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후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보다 안정적으로 동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화를 지원하였으며, 현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TF를 통해 제정 당시 미처 담아내지 못한 규정들, 시행 이후 15년의 시간 동안 높아진 장애인의 권리의식과 다양한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현실에서 더 필요한 법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목소리를 보태고 있습니다.

- 2004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률자문
- 2006 • 청계천 접근권 차별 손해배상청구소송
• 장애아동의 보험가입차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부승소
- 2007 •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 공동행동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 통과, 시행령, 시행규칙 및 해설서 작업
- 2008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관련 점검 및 대응 활동
- 2009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 토론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점검 가이드라인 작성
- 2011 •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상담원 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토론회
- 2013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관한 토론회
• 지하철 장애인 화장실 남녀 미구분 차별구제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
- 2014 • 진급심사 배제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 승소, 최초 인용 결정
- 2017 • 지하철차장 승강기 미설치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 화해권고결정
- 2018 • 수능시험 난독증 수험생 편의제공 거부 인권위 차별 진정
- 2019 • 지하철 단차소송 제기
• 우체국 금융거래제한사건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 항소심 대리
- 2020 • 수능시험 난독증 수험생 편의제공 거부 인권위 차별 진정, 시정권고결정
- 2021 • HIV 감염인에 대한 수술거부 인권위 차별진정 대리, 시정권고결정
- 2023 •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탑승제한 사건 항소심 대리, 고등법원 항소기각, 일부승소 확정
• 우체국 금융거래제한사건 대법원 상고기각, 일부승소 확정
- 2023~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TF 활동

장애인 노동력 착취 근절을 위한 활동

공감은 신안염전노예 사건 등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 근절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주로 발달장애인, 장애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등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절차를 대리하고,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사건의 공론화,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구제 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이 반복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노동력 착취 형사 처분 사례에 관한 질적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안 작성에 참여하였습니다.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2012 • 노예할아버지사건 무죄판결 바로잡기 대책위원회 활동
- 2014 • 신안염전노예사건 대책위원회 활동,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
- 2017 • 공장노예사건 피해자 지원 연대 활동
- 2019 • 잠실야구장노예사건 피해자 대리
• 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작성
• 신안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법원 상고기각, 일부승소 확정
- 2020 • 장애인 노동력 착취 형사 처분 사례에 관한 질적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연구
- 2021 •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TF 활동
- 2023 •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안 발의(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의안번호: 2121599)
- 2024~ • 사찰노예사건 대법원 판례 대책위원회

장애 안의 또 다른 차별, 정신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

공감은 2016년, 보호자와 전문의 1인의 동의만으로 비자의입원이 허용되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제24조의 위헌성을 지적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정신질환자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정신보건법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연대 활동을 했고 실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된 당사자의 인신구제 청구소송을 대리하여 위법한 인신구속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정신장애인 당사자 축제인 매드프라이드 서울 기획팀으로 활동하거나 지속적으로 관계법령 개정안 발의에도 힘을 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공감은 이 길에서 당사자와 함께할 것입니다.



강제 입원 지적 장애인 인신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

- 2006 •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법제연구 보고
- 2009 • 정신장애를 이유로 한 이웃의 집단 괴롭힘 사건 형사 고소 대리
- 2011 •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연구 참여
- 2014 • 정신보건법 정책토론회
- 2016 • 정신건강복지법 제24조 헌법불합치 결정
- 2019~2020 • 제1-2회 매드프라이드 서울 기획
- 2021 • 서울정신요양시설 실태조사_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연대 활동,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안 발의, 통과
- 2022 • 인신구제청구소송 2건 대리, 인신구속해제
- 2023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2건 발의(대표발의자: 남인순, 이재근 의원)
•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_정신질환자 가족 지원체계 연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재확인하고 대다수 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불공평과 차별을 종식하기 위한 효과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로써 제정되었으며, 헌법에 따라 2009년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우리의 법질서입니다. 공감은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1차 국가 보고서 심의 대응을 시작으로 2022년에도 2·3차 국가 보고서 심의 대응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4·5·6차 국가 보고서 심의 전까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 이행지표 작성, 모니터링 및 선택의정서 활용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27차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심의 대응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심의 대응 보고 및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있는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 2014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1차 국가 보고서 심의 대응 활동
- 2015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및 모니터링 방안에 관한 토론회
- 2016 • 장애인권리협약 10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사법 국제컨퍼런스 발제
- 2018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공개토론회 발표
- 2021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_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
- 2022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2·3차 국가 보고서 심의 대응연대 활동
- 2023 • '장애인단체 지하철 행동 과잉대응에 대한 유엔 긴급진정' 대리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지표연대 활동
- 2023~ • '탈시설정책 유엔 직권조사신청' 대리
- 2024~ • 가)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연대 활동

초록불

염전노예사건에 대한 국가책임을 묻다

[대법원 2019. 4. 5. 선고 2018다300067 판결]

공감은 '염전노예장애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이른바 '염전노예사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고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염전주들은 상당수 장애인이었던 피해자들이 지능이 낮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등을 악용해 숙식 제공을 빌미로 임금을 주지 않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이들을 자신의 노예로 부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상태에 놓여있었으나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도와 달라"며 수차례 파출소를 찾아갔으나 경찰이 번번이 염전주인에게 돌려보냈던 한 사례에서만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불복하여 피해자 3인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가해자와 함께 조사하는 등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경찰과 근로감독관,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자체 공무원, 실종자로 등록된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노동착취를 방치한 경찰 등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 판결은 2019년 4월 5일, 염전노예 국가배상 사건 상고심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되면서 확정되었으며, 장애인 착취 사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구체적 행동 책임을 분명히 한 점에서 비슷한 사건을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빨간불

장애인 차별이지만, 구제할 수 없는 지하철 단차의 간극

[서울고등법원 2021. 08. 19. 선고 2020나2024708 판결]

공감은 2019년,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지체장애인 원고 2명을 대리하여 '지하철 단차 장애인차별 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지하철 승강장 연단과 차량 사이 넓은 간격 등으로 인해 반복되어온 인명사고를 방지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과는 전부 패소. 1-2심 판단에 차이가 있다면 1심의 경우 이 사건 차별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관계법령에 위반하는 지하철 현황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승하차를 어렵게 하고, 이동식 발판 서비스는 장애인 승객이 비장애인 승객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당한 편의로 볼 수 없다며 '장애인차별행위'를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다만 차별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데 서울교통공사의 과도한 부담 또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청구를 최종 기각 판결하였다. 서울교통공사가 자동안전발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사업 성질을 변경하거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라는 등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구체적 기준이 무엇인지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이 판결은 2021년 말에 확정되었다. 이후 2023년,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 '발빠짐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안전발판을 확대·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쉬운 판결을 뒤로 하고, 이제 우리는 '휠체어 바퀴 빠짐 사고'와 '발빠짐 사고'의 구별 없이 지하철을 통해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받는 내일을 기대해 본다.

공감 20년 활동

빈곤 복지

여전히 법은 체제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 기구로 사회운동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피하지 않고, 법을 체제 비판적 관점과 인권의 눈으로 해석하며
잘 맞서는 것도 “법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홈리스 운동과 상담원, 활동가, 변호인으로
함께 할 공감을 기대합니다.

홈리스행동 / 이동현



홈리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 찾기

홈리스들은 법적으로 더 취약한 상태에 놓입니다. 명의도용을 당하기도 하고, 공중에 개방된 공공역사에서 강제퇴거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주거불안정을 악용하여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요양병원들도 있습니다. 공감은 홈리스인권단체들과 함께 이들이 겪는 법적 문제와 인권침해 사안에 대응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홈리스들을 위한 법적 지원과 노숙인복지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활동에 함께 하겠습니다.



홈리스 유인 요양병원장과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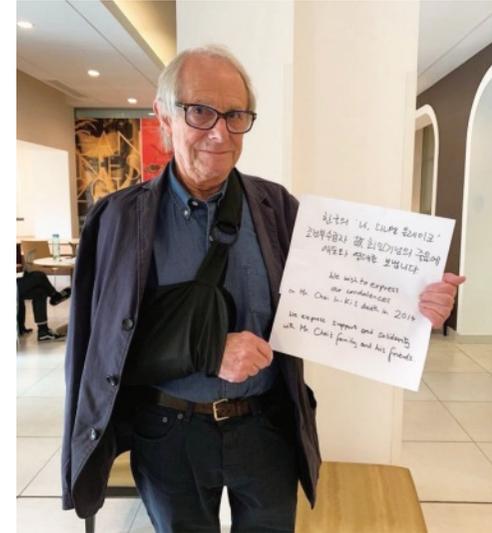
- 2004 •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 변호사 파견
- 2009 • 노숙인쉼터 설치운영 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 2011 • 서울역 홈리스 강제퇴거 대책위원회 활동
- 2012~ • 홈리스 정기 법률상담, 홈리스 명의도용 실태조사
- 2014 • 홈리스 유인 요양병원 형사고발
- 2017 • 홈리스 배제 '서울로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대응활동
- 2020 • 노숙인복지법 지원체계 연구 참여
- 2023 • 홈리스 범죄피해자변호사, 변호인으로 형사사건 지원

공공개발사업과 강제퇴거 대응

주거권은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사업으로 살고 있던 집을 잃는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개발사업의 목적은 본디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등 공공복리 증진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개발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는다면 사업은 정당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공감은 용산참사 당시 가장 먼저 달려가서 형사 법정에서 철거민들을 변호했고, 이후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활동 등 법제개선을 위해 애썼습니다. 쪽방 밀집지역의 공공개발사업을 지지하고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활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 2008 • 재개발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 2009 • 용산참사 철거민 형사사건 공동변호
 -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 2010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활동
- 2022 • 쪽방 주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예정지 등기부등본 전수조사
- 2023~ •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주거팀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을 위한 활동 참여
- 2024 • 쪽방주민 주민등록 전입신고거부처분 취소소송 대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자격을 묻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켈로치 감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에 해당합니다.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구조적 원인에서 기인한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지만, 본인이 아닌 가족의 재산소득으로 수급요건을 따지는 부양의무자기준, 비현실적 재산기준과 자의적 근로능력평가로 인한 조건부과 등으로 보장은 권리맞춤형이 아닌 예산맞춤형으로 이루어져 왔고, 사람을 살리자는 법이 사람을 옥죄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공감은 반빈곤단체와 시민단체들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불합리하고 자의적 자격요건들에 문제제기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 2009 •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행동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실태조사
- 2010 • 간주부양비로 인한 생계급여 변경처분 취소소송
- 2012 • 기초생활수급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지침 및 실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2016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국회 토론회 공동주관
- 2017 • '나, 다니엘 블레이크'(조건부수급자 사망 국가배상청구) 소송
- 2018 • 가족 소유 자동차 사용을 이유로 한 부정수급 형사사건 변론
- 2019 • 압류된 자동차 소유를 이유로 한 사회보장급여대상제외결정 취소소송
- 2019~2020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활동
- 2023 • 국가인권위원회에 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평가 제도개선 자문의건

초록불

한국에서 현실이 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수원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7가단531037]

환갑을 앞둔 K씨는 광역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흉복부대동맥류 진단을 받았다. 두 차례의 대수술을 받은 K씨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모아놓은 돈은 의료비로 썼고, 가계는 급격히 기울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2013년 K씨는 별안간 근로능력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유는 듣지 못했다. 판정 직후 K씨가 받던 급여가 60% 삭감되었다. K씨는 조건부로 수급받는 취업지원 대상자가 되어 결국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업했다. 그러나 취업 3개월 만에 K씨는 쓰러졌다. 그리고 회복을 못하고 사망했다. K씨의 사망 후에야 국민연금공단이 근로능력을 평가하면서 의사의 진단서를 무시하고, K씨의 수술이력을 간과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공감과 여러 변호사들은 소송대리인단을 꾸려 근로능력평가를 한 국민연금공단과 조건을 부과한 수원시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많은 시민들이 국가의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 인증샷을 찍어 법원에 제출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켄초치 감독도 동참했다. 마침내 수원지방법원은 공단이 한 근로능력평가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특히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와 조건부과에 따른 구조적 압박으로 근로능력 없는 K씨가 취업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인과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조건 부과의 비인간성을 드러낸 점이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근로능력자에 대한 조건부과는 끝내 폐지되지 않아 과제로 남는다.

빨간불

'자동차 고시'로 인한 수급 사각지대의 고통을 외면하다

[서울행정법원 2021. 4. 30. 선고 2019구합85102 판결]

노래방을 운영하던 A씨는 수해 피해를 입고 폐업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일이 겹치면서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워져, 관할 지자체에 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A씨 명의로 된 140만원 상당의 중고 자동차 때문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실질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일정비율 만큼 소득으로 간주하는 '소득환산제도'라는 것이 있다. 수급받기 전에 먼저 재산을 처분해서 생계유지를 할 수 있으면 수급하지 않겠다는 목적이다. 그런데 일반재산이나 금융재산은 소득환산율이 월 4~6%임에 반하여, 승용차는 월 100%이다. A씨는 실제로는 소득이 전혀 없지만, 월 140만원 소득이 있다고 간주되어 수급에서 탈락한 것이다. 문제는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처분하고 싶어도, 지방세체납 등으로 압류되어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A씨는 이러한 사정을 관할 지자체에, 자동차 고시 예외규정에 따라 자동차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경우 일반재산 소득환산율로 적용할 수도 있도록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부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공감은 자동차고시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입법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인정하며, 당사자에게 회부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가난한 사람은 승용차를 타면 안 된다는 차별의식, 광범위한 입법재량이라는 관성적인 판단으로 또다시 수급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당사자를 외면한 판결이었다.

공감 20년 활동

취약노동 인권

직장갑질119에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공감의 구성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일에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누구보다 따뜻한 위로를 피해자들에게 건넵니다.

직장갑질 119 / 오진호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지원과 구제소송

비정규직, 간접고용, 특수고용이라는 특별한 단어가 일상어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플랫폼노동자도 등장하고 프리랜서는 늘었습니다.
 불안정 노동에 처해있는 노동자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법의 보호에서 벗어나 계약서 없이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고,
 아무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합니다.
 불안정 노동자들은 그 취약한 지위 때문에
 노조 결성이나 단체교섭 등의 자발적 개선 노력도 쉽지 않습니다.
 공감은 일반화된 불안정 노동의 현실에 발 딛고서
 이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동법을 확장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여성의 날 기념 직장갑질119 젠더 특위 외모 갑질 규탄 기자회견



KBS드라마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촉구 기자회견

- 2010 • 도시가스 검침원 퇴직금청구소송
- 2011 • 택시기사 사납금 강요 손해배상청구소송
- 2012 • 학교비정규직 조리사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2013 •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법률지원
• 재택근무 특수고용노동자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
- 2014 • 분신 사망한 아파트 경비원 손해배상청구소송
• 대학 주차관리 노동자 집단해고 법률지원
- 2015 • 호텔 아르바이트 노동착취 고발
• 편의점 아르바이트 손해배상청구소송
•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임금청구소송
• 버스 중앙차로 청소노동자 복직 지원
- 2016 • 아파트 경비원 집단해고 대응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무효 확인소송
• 배달업 노동자 산재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 군인공제회 부당전직 취소소송
- 2017 • 삼표시멘트(구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조합 손해배상청구소송
• 학교비정규직 불법파견 진정
- 2018 • 직장갑질 119 활동 및 방송스태프 노동조합 법률지원
- 2019 •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법률지원팀 활동
• 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 차별시정 사건 행정소송 참가 및 대리
- 2020 • 청년 휴대폰 판매 노동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2021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한 골프장캐디 유족 대리 손해배상청구소송
• MBC 보도국 방송작가 부당해고 사건 행정소송 참가 및 대리
• 아파트 안내원 휴게시간 임금 및 부당전보 위자료 청구소송
- 2022 • KBS 드라마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 2023 • 뮤지컬배우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취소소송
• 방송업계 비정규직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모임 '엔딩크레딧' 활동

노동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및 제도개선

취약한 지위의 노동자들이 오늘날 처한 현실은 상당기간 누적된 정책과 법제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공감은 보다 근원적인 문제들을 직시하고 더 나은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꾸준한 연구조사와 캠페인, 그리고 제도개선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한편 소외된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참담한 사고를 통해서야 세상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함께 해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국회앞 농성투쟁 출근선전전



성공회대 인권주간 대학생현장실습대응모임 홍보 부스

- 2010 • 청소년 노동 관련 학생인권조례 제정 활동
- 2012 •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인정 및 노동관계법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 활동
- 2013 • 영어회화 전문강사 노동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활동
- 2014 • 심대 밑바닥 노동 단행본 출판
•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실태조사, 공단 구조고도화 관련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대안 발표
- 2015 • 비정규직 종합대책 대응을 위한 연구조사·캠페인
• 시멘트업계 불법고용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연구조사
- 2016 •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조사단 활동
• 외식업체 청년 노동자 자살사건 검찰 재조사 요구 및 책임업체에 대한 형사고소
• 경비원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의무 신설 및 고용안정 아파트에 대한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맑은 아파트 조례) 개정안 작성, 개정 조례 통과
• 노동조합 및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기업의 손해배상·가압류청구 제한을 위한 활동
- 2017 • 경비원 일자리 휴무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컨설팅 사업
- 2017~ • 직장감질 119 활동
- 2018 •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진상조사단 활동
- 2019 •故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활동
- 2020 • 청주방송故이재학PD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노동 관련 8대 분야 정책 과제 보고서
- 2021 • 방문요양보호사 불안정 노동실태와 해법 연구조사 보고서 발간
• 디지털 플랫폼 콘텐츠 창작 노동자 사상검증 및 노동조건에 관한 연구
- 2022 • 직장감질119 직장 내 괴롭힘 판례 연구 보고서
• 서울시 어르신돌봄 종사자 지원 센터와 장기요양 현장 성희롱 대응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2023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활동
• 직장감질119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보고서
• 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 활동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노동자들이 겪는 이중의 차별

노동자 안에서도 소외받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노동자, 이주노동자, 가사노동자, 여성노동자, 중고령노동자, 장애인노동자처럼 연령, 국적, 인종, 성별 등을 기준으로 한 이중의 차별이 소외된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공감은 앞으로도 사회의 관심과 제도적 보장 밖에 있는 이들의 곁에서 함께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2006 • 산업연수생에 대한 부당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 2007 •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 헌법소원
- 2008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 무효확인소송
- 2010 •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 실패 파악을 위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청구
- 2011 • 청소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따뜻한 밥 한 끼 캠페인
- 2012 •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 2013 • 돌봄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
- 2014 • 십대 청소년들의 '밀바닥노동' 개선을 위한 면접조사, 노동현장 기획조사 등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
- 2016 • 요양보호사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공대위 활동 및 전면 개정안 국회 통과
-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지급 규정 헌법소원
- 2017 • 활동지원사 노동조합의 노조활동 관련 민·형사 소송
- 2018 • 장애인노동조합 준비모임 법률지원
- 2019 • 대법원 국정원 여직원 정년 차별 인정 판결
- 2020 •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 채용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장애인활동법 개정 활동
- 2021~ •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 2022 •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
- 대학생 현장실습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대학생현장실습대응모임 활동
- 서울 도시가스검침원 국가인권위 진정
- 2023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활동

초록불

근로자 아니어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회사의 보호의무를 인정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2014115 판결]

골프장에서 일하던 경기보조원이 2020년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고인은 경기보조원들을 관리하는 골프장 직원인 '캡틴'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고인은 '캡틴'의 괴롭힘을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의 카페에 폭로했지만, 골프장은 '캡틴'과의 사이에서 고인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고인을 카페에서 강제 탈퇴시키며, 골프장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골프장과 '캡틴'에게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했다. 골프장은 내장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경기가 밀리지 않게 내장객들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경기보조원을 고용·교육·감독한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골프장이 경기보조원들의 고용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는 아쉽게도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개인사업자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과거의 대법원 판결을 넘지 못했다. 아쉬운 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비록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자(현 노무제공자)'인 고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받았다.**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다시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다만 이 판결이 비정규직이 늘어나기만 하는 어두운 과도기에 누구나 일터에서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빨간불

근로자인 것을 몰랐을 수도 있으니 괜찮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손 놓은 검찰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2022형제61473호 등]

2021년 공감은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등과 함께 KBS드라마 제작 현장이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운영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운영하는 제작사들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1년 뒤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나왔다. 이유는 법 위반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검찰은 드라마 제작 현장 스태프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판단되고, 제작사들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도 제작사들이 '스태프들을 근로자로 인식하지 못한 ... 것으로 보이므로 제작사들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사실의 부지는 변명되지만 법률의 부지는 변명되지 않는다"라는 법언이 있다. 이 법언처럼 법원에서 '몰랐다'는 변명은 쉽게 통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지적능력을 다하여 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본다. 고발 대상이 됐던 제작사들 중 일부는 과거에 근로감독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대법원은 2002년 이미 드라마 제작 현장 스태프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봤다. 제작사들의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도 어렵고, 변명이 되기도 어렵다. 그런데 검찰은 반복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제작사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비정규 고용형태가 증가하면서 근로자를 자영업자·프리랜서로 위장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외국의 감독기관은 근로자 위장은 세금 탈루, 권리 침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위법 행위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에 반해 한국은 검찰이 노동법의 공백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

초기에, 과연 공익법 활동을 하는 이분들이
 성소수자 관련 의제도 함께 다뤄줄 수 있을까
 기대와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웃팅 문제 상담기록지를 일일이 보며
 피해 대응을 위한 자료집 만들기라는 출발점이 있었고...
 이제는 성소수자 운동을 함께하는 동료죠.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평동 / 정민석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정정 신청 지원과 제도 개선 활동



성별정정 사건 처리 지침 상 수술요건 폐지를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트랜스젠더에게 법적 성별정정은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이용, 학습과 취업 기회와 같은 기본
 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전제입니다. 하지만 현행
 대법원 예규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문
 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수술의 위험과 비
 용을 부담하길 강요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성전환수술을 원하지 않거나 할 수 없
 는 당사자를 대리해 현행 지침침의 위헌성을 주
 장하고 최근의 의과학적 관점에서도 성전환수
 술 요구는 필수적이지 않음을 설득해 성전환수
 술 없는 법적 성별정정 사례를 만들고, 성별이분
 법에 근거한 신분증명 제도, 예규의 내용과 절차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 2006 •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활동
- 2013 • 서울 서부지방법원 외부성기성형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 성별정정 허가
- 2017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외부성기성형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성별정정 허가
- 2021 • 수원지방법원 생식능력제거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의 성별정정 허가
 • 광주가정법원 외부성기 성형수술하지 않은 성전환 여성 성별정정 허가
- 2022 • 성별 정정 사건 사무처리지침(현행 대법원 예규) 상 수술요건 삭제 권고 인권위 진정
- 2023 • 서울 서부지방법원 성전환수술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성별정정 허가 결정
 • 청주지방법원 성전환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남성의 성별정정 허가 결정
 • 수능 모의고사 OMR 카드 성별표시 강제 국가인권위 진정

난민, HIV/AIDS 감염인 등 이중적 차별과 낙인에 반대하다

: 소수자난민, HIV감염인 지원

HIV/AIDS 감염인은 사회적 차별과 낙인에 따른 인권 침해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감은 2006년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운동을 시작으로 감염인에 대한 편견에 기인한 차별적 정책에 대응하고, 인권침해 사건을 대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난민, 이주민, 성소수자, 감염인의 인권이 중첩적으로 교차하는 소수자난민을 더 잘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난민·이주민·성소수자인권단체들과 함께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2006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개정 운동
- 2007 • HIV 양성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승소
- 2009 • 에이즈치료제 무제한 강제실시 청구(기각 결정)
• 원어민강사 HIV 강제검사 위헌소원(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 2017 •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발족 및 '소수자난민권리를 위한 첫걸음 -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발간
- 2019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차별적 HIV 검사 요구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
- 2020 •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성소수자 난민 심사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발간
- 2021 • 성소수자난민 법률지원세미나 개최
- 2023 • 성적 지향 및 정치적 의견 복합사유 난민신청자 법무부 단계 난민 인정
• 외국법전문사협회 프로보노 중개 '성소수자난민 국가정황정보리서치' 발간
• HIV 장애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진행 중

혼인평등과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활동



2023 동성 사실혼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
2심 승소 기자회견

혼인의 자유와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그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공감은 가족구성권연구모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성소수자 집단의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4년 한국의 첫 동성혼 소송에 대리인단으로 참여하였으나,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공감은 여러 단체들과 사실혼 부부에게 인정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송을 시작하였고, 2023년 2월,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평등원칙을 근거로 동성커플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공감은 '모두의결혼' 네트워크 단체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혼인평등 제도화를 위한 소송과 입법운동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 2007~ •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참여
- 2013~ •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참여, '혼인평등연대'로 개편
- 2014 •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연구 참여
- 2014~ • 동성혼인 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사건 대리인단: 2016년 1심 각하, 2심 기각 결정
- 2019~ • 동성커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집단 진정 대리: 2022년 인권위 정책권고 결정
• 동성 사실혼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 대리인단 : 2022년 1심 패소, 2023년 2심 승소, 대법원 계류 중
- 2023~ • 혼인평등운동 네트워크 '모두의결혼' 참여 및 브라이언 임팩트 재단의 임팩트 그라운드 지원사업으로 상임활동가 인건비 지원

퀴어문화축제, 퀴어여성체육대회 등 집회결사의 자유, 차별금지를 위한 활동



성소수자 단체 법인설립 불허에 대한 대응 활동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행사를 준비할 때, 장소 대관에 더 신경을 씁니다.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민간시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광장을 사용할 때도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하루 개최되는 각 지역의 퀴어문화 축제에 대한 방해와 차별은 더 극심합니다. 집회결사의 자유는 소수자 집단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공감은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하고, 성소수자 행사에 대한 대관차별과 집회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공감은 2008년부터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 참여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07~ • 반차별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
- 2008~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참여
- 2015 • 비온뒤무지개재단 사단법인설립불허처분 취소소송 승소
• 서울퀴어문화축제,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경찰 집회금지처분 취소소송 승소
- 2019 • 서울퀴어문화축제 집회금지처분신청 사건 조직위원회 대리 승소
- 2020 • 퀴어여성체육대회 동대문구 체육시설 대관차별 국가배상소송 승소
- 2022 •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사단법인설립불허 행정심판 승소
- 2023 •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금지처분신청 사건 조직위원회 대리 승소
• 대구시장의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방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대리

초록불

성전환자 본인 의사에 반하는 신체 외관 변화 요구, 존엄성 훼손하는 것

[수원가정법원 2021. 10. 13. 선고 2020브202]

현행 예규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남성이 법적 성별정정을 위해 성기수술과 자궁적출술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의 오랜 정체화 과정과 호르몬 요법을 통한 신체 변화, 그리고 남성으로서 주변인들과 살아가고 있는 삶의 서사에도 불구하고 1심은 “여전히 여성의 신체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했다. 그러나 **항고심은 “자궁적출술과 같이 생식능력의 비가역적인 제거를 요구함은 성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신체의 온전성을 손상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보았다.** 당사자는 ‘남학생’으로 수능을 치렀다. 이어서 외과 수술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 딸로, 자매로, 연인으로 살아온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허가결정이 있었다(사건번호비공개). 1심이 “사회적 혼란, 혐오감, 당혹감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에 대해, 항고심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편견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성전환자에 대한 신체 외관의 변화는 당사자의 성별불쾌감을 해소하는 정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수술 강제가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빨간불

동성부부, 혼인과 가족구성권의 본질에 대해 되물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5.자 2014호파1842 결정]

2013년 청계천 광장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다. 부부는 2010년부터 동거하고 2013년에 정식으로 식을 올린 뒤 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구청은 동성결혼은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려하였다. 신랑도 신부도 남성인 동성 부부였기 때문이다. 대리인단을 구성하여 혼인신고 반려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했고, 신청인들은 우리 민법에서 동성혼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동성부부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라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혼인은 근본적으로 남녀결합’이라는 전제로, 민법과 헌법이 혼인을 장려하고 제반 권리를 부여하는 이유는 남녀 간의 결합을 통해 공동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해서 사회의 구성원을 재생산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동성부부를 현행 혼인제도에서 배제한 것이 타당하다** 보았다. 이 판결은 결혼을 개인의 기본권이 아닌, 임신 출산이라는 재생산 기능의 도구로만 평가했다는 점에서 시대상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공감 20년 활동

이주민 인권

현장에서 법과 시민운동을 잇는
 '공익법운동'의 장을 연 공감은
 저와 같은 공익변호사들에게 활동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직접 그 앞에서 이끌어주고 있는 감사한 존재,
 든든한 나무이고, 가까이 있는 이웃이자,
 계속해서 건재하길 기대하는 존재입니다.

난민인권센터 / 김연주



이주민의 인권과 출입국 관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도 법원의 영장 없이도 무기한으로 구금될 수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신체의 자유라는 권리가, 출입국관리라는 행정적 필요에 의해 쉽게 제한되어 버립니다. 2007년 여수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대응부터 2021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새우깍기' 고문사건 대응까지, 공감은 '한국국적이 없다는 사실, 혹은 출입국관리의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외국인의 수사절차상 기본 권리인 영사접견권리가 침해된 사건, 외국인 강사에게만 HIV 검사를 강제한 사건, 무슬림 사원 건설을 둘러싼 갈등, 대학교에서 발생한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 등 외국인에 대한 차별 사건에 대해서도 공감은 소송, 공론화, 입법 활동 등 꾸준히 대응해 왔습니다.

- 2007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 2008 • 이주정책개선모임 결성,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위한 연구조사
- 2009 • 김해 외국인 상점 불법적 출입국단속 국가배상 소송 승소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 2014 •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안 발의
- 2015 •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사업장출입조사권을 포함한 정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응활동
- 2016 • '이주민의 기본권 재구성' 공동 집담회 개최
- 2017 • 영사접견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 승소
- 2018 • 출입국관리법 및 인신보호법 개정안 발의
• 과거 위명여권 행사를 이유로 한 결혼이주여성 귀화불허처분 취소소송 승소
• 이주민의 건강보험 차별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대한민국 17-19차 심의 대응 사무국 활동
- 2019 •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 외국인 강사에 대한 HIV 강제검사 국가배상 소송 승소
- 2021~ •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깍기' 등 고문사건 대응을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가배상 소송, 유엔 개인진정 등)
• 대구 무슬림사원 평화로운 건설을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
- 2023 • 외국인에 대한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 헌법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 2024 • 한신대학교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에 대한 강제출국사건 대응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난민/무국적자 인권

공감은 양상한 법조항 몇 개 외에는 난민에 대한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시기부터 난민과 난민신청자에 대한 인권보호활동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국내 난민소송에서 변호사로서는 최초의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다년 간의 실무경험과 연구활동을 통해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제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공감은 또한 난민신청자들의 난민지위인정 과정 뿐만 아니라 생계와 취업, 체류와 구금 문제도 함께 다루어왔고, 아직 제도가 미비한 무국적자의 보호를 위해 사례에 개입하고 필요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소수자 난민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특화된 법률지원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2011 세계난민의 날 플래시몹



2018 세계난민의날 기자회견



2017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교육

- 2006 • 버마민주화활동가 9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승소
- 2007 • 법무부 난민지침에 대한 정보공개불허처분 취소소송 승소
• 중국민주화활동가 가족 3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승소
- 2008 • 난민인권네트워크 결성, 국내 난민 등 인권실태조사
- 2009 • 난민법 제정안 발의
- 2010 • 버마민주화활동가 8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승소
- 2011 •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경인문화사) 공동 발간
• 세계난민의날 댄스 플래시몹
- 2012 • 난민법 제정
- 2013 • 취업을 이유로 한 난민신청자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승소
- 2017 •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결성
• 무국적자 판정절차 도입을 위한 비교법 연구조사
- 2019 • 난민법의 현황과 과제 (경인문화사) 공동 발간
• 이집트난민 재신청자 1인, 콩고난민 재신청자 가족 4인 난민 인정
- 2020 • 콩고정치적난민 1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승소
• 무국적자 강제퇴거명령 철회 및 체류자격 신청 인용
• 이집트난민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승소
- 2021 • 이집트난민 신청자 1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승소
- 2022 • 무국적자 자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허가
• 이집트난민 재신청 3인 난민인정
- 2023 • 무국적정치적난민 1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승소
• 러시아 정치-성소수자난민 1인 법무부단계 난민인정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

: 이주노동자가 사람으로서, 노동자로서 가지는
인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국경을 넘어 국내 기업에 알선되는 이주노동자들은 “체류조건”이라는 명목으로 기본권과 노동권의 제한을 받습니다. 한 사용자에게 묶여 직업선택의 자유는 물론, 직장선택의 자유도 제한받으며, 부당하고 불법적 대우를 받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직하고 직장을 옮길 수 없습니다.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집이 아닌 비닐하우스에서 살면서도 수십만원의 숙식비가 월급에서 공제되며, 선원이주노동자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커녕 최저임금마저 차별적으로 적용받습니다. 공감은 실태조사, 소송과 헌법재판 등의 활동을 통해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한국에 왔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기본권과 노동권에 대한 침해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2023 고용허가제 지역제한 조치에 대한 진정



2021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위헌소송

- 2007 • 고용허가제 하 사업장변경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 2008 • 이주노동자 지도부 표적단속 및 강제추방에 대한 헌법소원
- 2011 • 파업을 이유로 구속된 베트남 노동자 형사변론
- 2013 • 지구인의 정류장 파견 활동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 선상 폭행으로 사업장변경을 요구한 선원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 2014 •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지급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 2016 •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 이주노동자 숙식비 청구소송
- 2017 • 이주가사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및 인권보장 연구조사
- 2019 •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법제화 연구
- 2020 • 고용허가제 하 사업장변경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 고용허가제 하 재입국 특례 제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활동
- 산재사망 이주노동자 유족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청구소송 및 관련 조항 위헌제청신청
- 2021~ • 이주어선원 최저임금 미달 산재보상금여 취소소송
- 2023~ • 비닐하우스 기숙사 산재사망 국가배상청구소송
- 2023 • 고용허가제 하 사업장변경 지역제한 추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제출

초록불

외국인보호소에서 '자유와 정의'를 외치다!

[헌법재판소 2023. 3. 23 자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결정]

2007년 여수 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 참사가 발생한 이후 공감은 '출입국관리의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위해 활동해 왔다. 2021년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소위 '새우껍기' 고문사건이 발생하였고, 공감은 사건 공개 직후 만들어진 총98개의 연대단위가 함께 하는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책위원회'에 함께 하며 3년 간 40번이 넘는 회의를 하며 법무부와의 면담, 기자회견, 토론회, 증언대회 등을 기획·진행하고, 고문피해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대리하였다.

새우껍기 고문사건 자체의 파급력과 대책위원회 활동의 결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외국인보호소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된 개선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외국인보호소 내 특별계호(독방) 및 장비사용 관련 법령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었다. 대응 과정에서 2023년 3월,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에 대해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했던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공감도 공동대리인단으로 함께 한 이 사건의 공개변론에 '새우껍기' 사건에 대한 질의가 나오기도 하였다. 지금 공감은 고문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국가배상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당사자, 변호사, 활동가, 연구자, 학생, 이주단체, 난민단체 등이 '자유와 정의'를 위해 연대한 결과 하나의 사건 대응을 넘어 제도 개선까지 이뤄낸 활동이다.

빨간불

국민이 아닌 사람을 위한 헌법은 없다

[헌재 2011. 9. 29. 선고 2007헌마1083, 2021. 12. 23. 선고 2020헌마395]

헌법재판소는 2011년과 2021년 두 번에 걸쳐 고용허가제에 따른 사업장변경제한이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결론도 문제지만, 결론에 이르는 논거가 더욱 고개를 가우뚱하게 만든다. 이주노동자는 고용센터의 허가가 없으면 직장을 바꿀 수 없고, 허가받으려면 고시된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장변경제한 덕에 사용자는 이주노동자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되었다. 위약금예정, 전차금상계 및 강제저금에 대한 금지 등 근로기준법으로 근로계약관계에 개입하여 막고자 했던 것을 국가가 오히려 나서서 강제하는 꼴이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사업장변경제한이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와 무관하다고 보았다. 직장선택의 자유에 대해서는 외국인노동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는 법률로써 구체화된다는 이유로 현저히 완화된 위헌심사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같은 사안에 대해 사람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가장 심한 형태의 차별이기에 같은 자유권이 외국인에 대해서만 법률로써 구체화된다는 논리는 납득하기도 어렵고, 위험하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사업장변경제한이 기업의 안정적 노동력 확보라는 입법목적에 기여하므로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사익을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헌법을 적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인 사용자의 사익이 외국인인 노동자의 기본권에 우선함을 천명한 헌법재판소에게 이주노동자는 국민도, 사람도 아닌 사용자만을 위한 존재에 불과한 것일까.

공감 20년 활동

국제 인권

활동이라는 게 부침도 있고
또 다른 변화도 있을 텐데
상대적으로 공감 변호사님들은 꾸준히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신뢰라는 것들이 우리 사회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제민주연대 / 나현필



국경을 넘은 네트워크 구축과 인권옹호활동

공감은 설립 초기부터 국내외를 불문하고 좀 더 취약한 집단과 공간에 주목하고 활동하고자 노력해 왔고 그 일환으로 다양한 국제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초기에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 인권에 기초한 사법접근권 아시아 컨소시엄 등 아시아 내의 난민인권 및 사법접근권을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동해왔고, 그 후 아시아 프로보노 컨소시엄, 로아시아 인권위원회/인권변호사 네트워크 등 다양한 국제 인권변호사들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아시아 내 주요 인권변호사단체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전 세계 인권변호사들과 함께 공평한 코로나19 보건 옹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유엔진정 등 온라인 활동 네트워크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2023 APRRN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 회의

- 2008~
 -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 공동 설립 및 의장 단체 활동, 아태지역 난민 인권 옹호 활동
- 2009~
 - 영국 법원 및 호주 법원 탈북자 난민신청사건 전문가 의견 제출 및 법원 출석 전문가 증언
- 2010~
 - 인권에 기초한 사법접근권 아시아 컨소시엄 공동 설립 및 의장 단체 활동, 아시아 지역 사법접근권 확장을 위한 옹호 활동
- 2014~
 - 아시아 프로보노 컨소시엄 구성원, PILnet & TrustLaw 프로보노중개단체, FortifyRights 자문위원 활동을 통한 아시아 내 프로보노 활성화, 인권 문제 개선 활동
- 2017
 - 대만 난민법 입법운동 전문가 자문
- 2019~
 - 운동변호사 글로벌네트워크 구성원 활동
 - OMCT 고문방지 아시아 변호사단 활동
 - 국제학술지 기업과인권저널(캠브리지대 출판사) 편집진 활동
- 2020
 - 미국 뉴욕대로스쿨 인권글로벌정의센터 인권침해예방프로젝트 시민사회그룹 활동
- 2021
 - 유엔경제사회의사회 NGO 특별협의지위 취득
 - 일본 미안마인 특별체류지위 전문가 자문
- 2021~
 - 국제인권리더그룹 인권역량연대강화심포지엄 구성원 활동
 - 공평한 코로나19 보건 옹호 네트워크 활동
 - PILnet 아시아지역 공익변론 온라인강좌 전략소송 강의
- 2022~
 - 로아시아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로아시아 인권변호사 네트워크 의장 활동
 - 아시아모니터링리소스센터 이사 활동
- 2023~
 - 호주 Diplomacy Training Programme 구성원 네트워크 활동

국제인권기구 & 국제인권기준 기반 인권옹호활동



2023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 심의 참가

공감은 국내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엔 인권조약기구 등 국제인권기구에서 한국의 인권이슈에 관한 권고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국제인권기준이 국내에서 제대로 알려지고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조약기구의 한국 심의 시 NGO보고서 제출 등의 활동, 국제인권법의 법제개선, 소송에서의 활용, 다양한 공간에서의 국제인권법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공감은 기존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동시에 국제인권법이 국내 입법, 사법, 행정 전 영역에서 주류화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 2006~**
 - 유엔 조약기구의 한국 심의 시 NGO 보고서 공동 집필 및 현지 심의 대응 활동
 -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2017, 2023), 여성차별철폐위원회(2011), 유엔 자유권위원회(2015, 2023), 사회권위원회(2017), 인종차별철폐위원회(2012, 2018), 장애인권리위원회(2015, 2022), 고문방지위원회(2017) 등
 - 특별절차 보고관·워킹그룹의 한국 공식방문 대응 및 NGO 보고서 공동 집필
 - 유엔 이주민인권(2015), 의사표현의 자유(2021), 집회결사의 자유(2016), 인권옹호자(2014), 유해물질(2015), 기업인권(2016) 등
- 2012~**
 - 대한변협, 유엔 인권정책센터 주최 유엔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심포지엄
- 2013~**
 - 이화여대, 서울대 로스쿨 국제인권 클리닉
- 2016**
 - 서울지방변호사회 주관 법률가를 위한 국제인권법 교육 기획·강의
- 2017~**
 - 국제인권네트워크 사무국
- 2019**
 -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공동주최 및 발표
 -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자유권위원회 개인통보결정 국내이행 소송 대리
- 2020**
 - 입법부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공동주최 및 발표
- 2021**
 - 아시아 프로보노 컨퍼런스, 라운드테이블 공동주관
 - 대한변협 국제인권특별위원회 국제인권 아카데미 기획·강의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국제인권활동

공감은 2005년부터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알리고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온두라스, 라오스 등 한국기업들이 진출한 국가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현장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하였고,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 연락사무소,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특별절차 등 다양한 인권구제 절차를 활용해왔습니다. 또한 세계적 공급망을 갖춘 다국적 기업에 대해 인권환경위험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 제정을 위해 기업과인권네트워크와 함께 노력한 결과 2023년 아시아 최초로 인권환경실사의무화법 발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2005~**
 - 해외진출 한국기업, 한국기반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 현지조사 및 모니터링(과테말라, 라오스, 멕시코, 미얀마,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 2009**
 - 한국기업 미얀마 가스개바사업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미국 하버드로스쿨 국제인권클리닉 공동대리)
- 2013**
 - 한국기업 인도 제철소건설사업에 관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내연락사무소 진정 (투자자 소재 노르웨이, 네덜란드 국내 연락사무소에 공동 진정)
- 2016**
 - 가슴기살균제 피해 관련 기업
본사 소재 영국 반부패특검 진정, 투자자 소재 노르웨이연기금 윤리위원회 진정
- 2019**
 - 한국기업 건설 라오스댐 붕괴사건에 관한 유엔 기업인권 워킹그룹 및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연락사무소 진정(개발, 환경, 평화, 인권단체 공동)
- 2022**
 - 라오스댐 붕괴로 인한 피해회복 현황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 2023**
 - 유엔 사회권위원회 라오스 사전 심의에 라오스댐 붕괴 피해회복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서 제출
 - 기업에 대해 인권환경실사를 의무화하는 법률의 제정을 위한 활동

초록불

인종차별적 제도와의 10년 투쟁에 종지부를 찍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가단 5125207 판결]

과거 외국인 교사들의 사생활과 관련한 부정적인 보도가 이어지면서 법무부는 특정 비자의 외국인 강사들에게만 HIV 검사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었다. 2009년 뉴질랜드 국적자 A는 차별적인 검사를 거부하여 근무 중이던 학교에서 계약갱신이 거절된 뒤, 국내 중재절차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거쳤으나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결국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했다. 2015년 위원회는 해당 지침이 협약이 보장하는 '인종 및 피부색과 관계없이 만인에게 인정되는 근로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것을 권고하였다. 해당 지침은 결국 폐지되었으나, A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공감과 동료단체들이 함께 국내 법원에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하였다.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결국 인종에 기초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HIV 검사는 위법하므로 국가는 A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액인 3,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국가 측에서는 그 사이 10년의 세월이 흘러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원은 지난 10년 간 국내외 투쟁과정을 하나하나 나열하며 'A가 권리 위에 잠자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엔 인권규약위원회의 권고 공개일을 소멸시효 판단의 기산일로 삼은 최초의 판결로서,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선례를 마련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빨간불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하는 국내연락사무소(NC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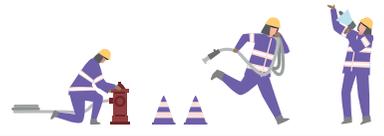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현지의 법제를 통해 해결해야겠지만, 현지의 피해구제 법제나 관련 시스템이 취약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엔인권시스템 진정이나 한국에서의 소송, 국가인권위 진정 혹은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국내 연락사무소(NCP)에의 진정을 고려할 수 있다. 공감은 필리핀 카비테 경제특구의 한국리튬공장 노조탄압사건을 시작으로 한국기업 인도 오리사주 제철소 건설사업, 한국 ODA 필리핀 할라우담 건설사업, 한국기업 건설, 운영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등으로 인한 현지 주민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당사자, 여러 국내외 단체와 공동으로 국내 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내 연락사무소는 때로는 현지에 별도의 피해구제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충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아니면 이미 관련 전문가들의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사실상 각하해왔다.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도 기업 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종결할 수밖에 없으며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실질적인 평가를 회피해왔다. 국가인권위 등 국내외 기관과 단체들이 이러한 국내 연락사무소의 부실한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여전히 이 절차를 통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는 요원한 상태다.

공감 20년 활동

재난과 인권

막막한 상황에서 도움이 절실했던
유가족들과 생존자들 가장 가까이에서
어떠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는지
하나하나 살피고 정부 정책과 제도의 문제는 무엇인지
공공의 영역이 놓치는 부분을 꼼꼼히 채워주셨습니다.
진정성 있는 그 노력 덕에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과 피해자들도
조금씩 목소리를 키울 수 있었고,
나아가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요구에 국회가 호응할 수 있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이미현



세월호에서 코로나19까지 사회적 참사에 답하다

공감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적 참사와 마주하였습니다. 참사 피해자의 권리가 참사 대응의 시작과 끝이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피해자의 알 권리, 참여권, 집회와 결사의 자유, 피해 최소화에 대한 권리, 생계에 관한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 책임자의 처벌에 관한 권리, 배상, 보상 등 구제에 대한 권리 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시작으로 메르스, 가슴가살균제, 스틸라데이지호 침몰, 헝가리유람선 침몰, 전방 지역 고엽제 민간인 피해, 코로나19 참사 등 여러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을 위한 직접적인 법률지원과 조사, 법제개선활동을 수행해왔습니다.



2019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슴가살균제제조기업 영국 본사 현지조사



2024 코로나19백신포해가족협의회-대한변협 생명안전특위 간담회



2023 코로나19 추모제 후 광화문 행진



2023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가 집담회

- 2014~
 - 4.16 세월호 참사 현장지원,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법률지원
- 2015
 - 4.16 세월호 참사 민간잠수사 피해자 의상자 지정신청 /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소송 / 피해자 인권실태 조사보고서 공동 집필 / 집회 주최자 집시법 등 위반사건 형사 변론
 - 메르스 병원 격리 피해자 면담 및 법률지원
 -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메르스 격리자와 인권 집필
- 2016~
 - 가슴가살균제 참사 피해가족 법률자문
- 2017~
 - 스틸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피해가족 법률자문
- 2018~2022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활동
- 2019
 - 헝가리 유람선 참사 피해가족 법률자문
 -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재난과 피해자 인권 집필
- 2020~
 - 코로나19 대응 : 대한변협 코로나19 법률상담 Q&A, 연구보고서 - 코로나19와 인권취약집단의 보호 공동 집필 /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공동 집필, 사례 개입 및 감염병예방법제 개선 활동
- 2021~
 - 코로나19백신포해가족협의회 법률자문 및 관련 법제개선 활동
- 2021
 -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 전문과정 재난상황에서의 피해자 권리 강의
- 2022
 -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자대회 인권과 시민사회의 역할 : 코로나19 인권 네트워크 활동을 중심으로 발표
 - 질병관리청 연구용역 인권 관점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공동집필
- 2023
 - 국회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제
 -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재난과 인권 : 피해자 권리 및 국가 책임 발표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159개의 우주가 사라진 그날, 그곳에 우리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활동)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권리보장은 요원합니다. 정부는 “진상규명이 진정한 추모다.”라는 유가족의 간절한 외침에도 ‘10·29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끝끝내 거부하며 유가족을 외면했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를 고수하며 형식적인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감은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 곁에서 피해자 지원 및 권리보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3~2024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상황실장
 -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민변 TF 간사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총회, 운영위원회, 확대간담회 참여 및 지원
 - 생존자 및 외국인 희생자 면담 및 지원
 - 10.29 이태원 참사 행안부 지원단, 서울시 복지과, 용산구 등과 관련 사항 협의
 -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학술대회 발제 및 지원
 - 2차 가해 방지 및 대응 관련 활동
 - 국정조사 모니터링 및 진상규명 과제 보고서 작성 등 진상규명활동
 - 형사사건 피해자 변호단 참여 및 유가족 관련 민사, 형사, 행정사건 대응
 - 특별법 법률안 성안 참여 및 특별법 국회통과 촉구 활동
: 동조단식, 진실버스, 진실의 걷기, 국회 앞 집중농성 참여 등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실무 및 법률 지원

초록불

10.29 이태원참사의 주요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대응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합31 업무상과실치사등]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참사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견하고 당일 직전에라도 비극적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경찰 배치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지도 않았다. 대검찰청은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는 동안 김 청장을 기소하지 않다가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검사도 피의자도 모두 불기소를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피해자 측만 기소의견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측은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검찰의 기록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만을 기초로 변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 기록을 갖고 있는 언론사의 기사들과 공판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추려 의견서를 작성하고 변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대리인단이 제출한 의견서와 구두 변론까지 살펴본 후 기소의견을 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피의자 김광호에 대하여 공소제기의견으로 의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른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가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그동안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던 서울경찰청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검찰의 기소 결정과 그 이후 이루어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직위해제는 유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빨간불

사회적 참사의 극복과 재발 방지를 가로막는 정부의 사참위 권고 ‘이행 현황’

공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 반 동안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더불어 정부에 대한 416세월호참사, 가슴기살균제참사, 재난안전, 재난피해자지원 등과 관련된 80개 항목의 권고 작성에 참여했다. 기존 참사의 극복을 위한 방안과 향후 참사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이 권고에 대해 정부는 법령에 근거해 1년 뒤 국회에 그 ‘이행 현황’을 보고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최소한의 진정성도 보기 어려운 형식적인 답변이었고 유사한 참사의 반복과 부적절한 대응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예컨대 재난 참사 전반에 대한 피해자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매뉴얼과 지침이 일부 추가되었다는 답변을 했을 뿐 전혀 바뀌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재난 원인 조사기구를 설치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사정을 잘 아는 관련 부처가 조사하는 것이 맞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조사 결과로 확인된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이 2017년에 사과를 했다는 동문서답을 내놓았다. 정부가 사참위의 권고를,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이를 이행하고 보장하기 위한 법제의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감은 계속 노력하고자 한다.

공감 20년 활동

공익법 교육/중개

솔한 판결문들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 판결을 내리지만,
 공익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사람마다 말이 다르니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전업하는 공익변호사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공감은 아무도 가본 적 없었던 길에 서서
 공익이 무엇인지, 공익변호사는 어떤 사람인지,
 선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 정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 이한숙



공익인권교육을 기획하고 전파하다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소외되는 사람 없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 개선 또한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비)사회인, (예비)법률가들에 대한 인권의 내용과 인권 감수성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은 초기부터 체계적인 자원활동가 제도를 운영했고, 로스쿨, 대학교 등에서 강의했고, 인권법캠프, 청소년 인권행사 등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인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23 제27회 공감 인권법 캠프

- 2005~ • 공감 자원활동가 제도 운영(2024 상반기 39기 정식 자원활동가 활동 중)
- 2005~2017 • 공감 월례포럼 진행
- 2008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공동으로 국제 심포지엄 '로스쿨과 공익인권법' 개최
- 2008~ • 공감 인권법 캠프 개최
- 2010~ • 전국 로스쿨 '소수자 인권 실무', '리걸클리닉' 강좌 및 각종 특강 진행
- 전국 25개 로스쿨 여름·겨울 실무수습 진행
- 2011~2019 • 청소년 인권행사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모여라' 행사 개최
- 2018~ • 공감 포럼 개최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익법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고, 공익법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감은 변호사와 로펌의 공익활동에 대한 기초조사에서 시작해서 한국로펌과 국내외국로펌의 공익활동 활성화,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의 프로보노지원조직 설치 등 다양한 공간에서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

- 2005 • 서울대 법의 지배센터 'NGO와 법의 지배' 프로젝트 공동 수행
- 2007 • 1차 미국 공익법단체 탐방
- 2010~2016 •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담당 변호사 정기모임 진행
- 2010 • 2차 미국 공익법단체 탐방
- 2011~ •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진행
- 2012 • 변협 변호사 공익활동 지표 개발 연구 참여
- 2014~ • 공익변호사 한마당 행사 개최
- 2014 • 재단법인 동천 5주년 기념 공익법 세미나 발제 '한국 공익법운동의 현황과 과제'
- 2015~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와 공익활동 중개 업무협약 체결, 외국변호사 대상 공익인권법 교육 및 공익활동 중개
- 2015 • 공익입법 매뉴얼 공동 집필
- 2016 •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개소
- 2020 • 대한변협 프로보노지원센터 개소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공감은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직접 수행할 뿐 아니라 공익활동을 공유하고 널리 확산하는 활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공감은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신청을 받아 공익단체에서 일하고자 하는 지원자를 선정하고 공익단체에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선발된 공익전담변호사들은 2년 동안 인건비(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이주·난민, 여성, 정보인권, 노동, 성소수자, 환경 분야 등 공익단체에서 상근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1기: 2014년 상반기~2016년 상반기

- 고지운 |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 신훈민 | 진보네트워크센터

2기: 2015년 상반기~2017년 상반기

- 이소아 | 광주,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김지현 | 부산, 부산YMCA 시민권익센터

3기: 2016년 상반기~2018년 상반기

- 임자운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울림
- 조영신 |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권리찾기 모임 월담

4기: 2017년 상반기~2019년 상반기

- 송지은 |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핑통
- 김예원 | 장애인권법센터
- 신지형 | 녹색법률센터

5기: 2018년 상반기~2020년 상반기

- 오진숙 | 청주, 청주노동인권센터
- 조영은 | 청주, 청주노동인권센터
- 이은혜 | 군포, 아시아의 창

6기: 2019년 상반기~2021년 상반기

- 이제호 | 이주민센터 친구
- 이현서 |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 정진아 | 지구인의 정류장

7기: 2020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 김민아 | 광주,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 나동환 | 장애인차별추진연대

8기: 2021년 상반기~2023년 상반기

- 정다혜 | 장애인법연구회

9기: 2022년 상반기~2024년 상반기

- 이진혜 | 이주민센터 친구
- 임한결 | 안산,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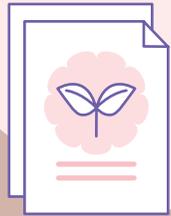
10기: 2023년 상반기~2025년 상반기

- 이도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숫자로 보는 공감 +20

2,421건

공감 홈페이지
'함께하는 공익소송' 신청건



공익
소송

835건

소송 지원



125건

연구조사/실태조사



360회

토론회
심포지엄의 주최/주관/발표/토론

제도
개선

12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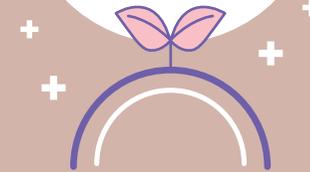
주제별 법제도
개선활동



27차
1,782명

인권법캠프

공익법
교육/중개



15차
355명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모여라
'청소년 행사'

38차
706명

자원활동가
*수시 자원활동가 포함

29차
316명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57명

사법연수원
실무수습

약 **1,000명**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16명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789건

공익/인권법
교육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통계는 '한국사회가치평가'에서 취합한 자료를 포함했습니다.

공감 2023년 살림살이

수입



지출

(단위:천원)



수입 항목에서 '이자 및 기타'수입은 무엇인가요?

⇒ 예금이자와 인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 항목에서 인건비 비중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공감 변호사의 활동 = 공감의 사업'입니다. 공감은 법률지원활동에 대한 수입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전업 공익변호사 활동을 위한 인건비는 공감 고유의 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지출 내역

(단위:천원)

모금비	
인건비	60,629
사회보험료	5,245
복리후생비/교육훈련비	312
시설관리비	1,819
도서인쇄비/소모품비	10,592
기타	12,684
합계	91,281

일반관리비	
인건비	51,195
사회보험료	4,113
복리후생비/교육훈련비	1,999
시설관리비	1,154
도서인쇄비/소모품비	856
기타	3,736
합계	63,053

사업수행비	
인건비	564,414
사회보험료	52,634
복리후생비/교육훈련비	760
시설관리비	15,397
공익변호사차립지원사업비	84,000
네트워크단체지원사업비	25,000
법률교육비	348
법률지원비	5,308
소송지원비	9,372
교육중개비	20,845
연구조사비	47,670
인권법캠프비	7,201
포럼비	889
도서인쇄비/소모품비	3,153
기타	3,998
합계	840,989

공감을 더 가까이서 만나는 방법

2024년 공감 두 번째 책이 나옵니다

10년 만에 공감의 활동을 엮어놓은 보따리를 풀어, 새 단행본 출간을 똑딱 똑딱 준비 중입니다. 짧은 글로만 보던 공감 활동이 아쉬웠던 분, 사건 뒤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했던 분, 나만 이런 문제에 관심 있나 외로웠던 분, 공감을 잘 몰랐던 분에서 너무 사랑하는 분들까지. **많은부!**

2013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를 읽고
공감에 기부를 시작했다

공익변호사의 꿈을 가지게 됐다

인권 이슈를 경험해볼 수 있었다



-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 2013년 12월 9일 발간
-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2 | 2024년 하반기 발간 예정

공감 유튜브 채널을 소개합니다

지하철 기다리는 시간, 혼밥 하다가, 잠이 안 와 뒤척이는 밤. 짧은 음악도 좋지만 공감 유튜브 영상 한편은 어떠세요? 재미나지만 가볍지만은 않게, 조금 더 가까이, 공감 활동을 알리려 2019년부터 차곡차곡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채널을 꾸렸습니다. 오늘도 공감 유튜브팀은 더 많은 인권 활동, 공감 소식, 함께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로 공감 유튜브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기다릴게요!



유튜브 채널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공감



20th ANNIVERSARY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주년 기념 자료집

공감의 길을 '잇는' 활동 - ① 장애

'엄'형국, '조'미연, 조인'영'의 20살 공감잇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국장 | 엄형국

안녕하세요.
저는 전 공감 변호사였습니다.
2004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활동을 하고
20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엄형국입니다.

이야기 나눌이



장애인권팀 | 조인영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5월부터
장애인권팀에서
일하고 있는
조인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왼쪽부터 조인영 엄형국 조미연

장애인권팀 | 조미연

곧 다가오는 공감 20주년
행사를 앞에 두고
공감의 장애인권팀이었던
그리고 현재 장애인권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 인연이 뭉쳤습니다.
저는 2019년 4월부터
공감 장애인권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조미연 변호사입니다.

공감의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의 시작

엄형국 공감 창립을 할 때 변호사 4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변호사 파견 지원 사업을 신청 받았는데 신청한 분야가 여성인권, 이주인권, 사회복지 그리고 장애인권이었습니다. 그때 각 변호사별로 영역을 하나씩 나뉘고 제가 장애인권을 맡게 됐습니다.

조인영 저는 공감의 장애인권팀 공고가 났을 때 공감의 활동을 찾아봤어요. 공감이 굵직한 소송들도 많이 했고 또 장애 영역 안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중요했던 포인트는 조미연 변호사님께서 교육하시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활기차고 진지하게 교육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저런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조미연 저는 항상 공감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나는 성덕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성덕의 시작이 됐던 게 공감 자원활동가였던 것 같아요. 자원활동가 때 담당해 주셨던 분이 바로 엄형국 변호사님이셨어요. 저로서는 꿈에 그리던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을 처음 보고 공감에서 5개월 동안 동고동락을 하다시피 했죠. 나중에 변호사가 되어 구직 활동을 하는데 공감의 채용공고가 떴었어요. 공감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장애 쪽을 뽑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내심 마음으로는 '내가 만약에 장애 쪽에서 일을 하게 되면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경험이고 인연이겠

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로스쿨에 가기 전에 지도관님으로 함께하시던 분과 이제는 선배님 그리고 동료로 함께할 수 있으면 이걸 정말 각별한 인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감이 '바라던'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

엄형국 공감에서 처음 활동할 때는 장애계에 상근하는 변호사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장애인 시설에 대한 고소 고발도 해야 하고 성년후견법에 대한 입법안을 만들고 장애 유형별로 상담도 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장애인차별 금지법(이하 장차법)이에요. 사실 저는 장차법 자체를 몰랐었어요. 처음 1년 차 때 장차법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면서 장차법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장차법 제정에 한 당사자로 정부와의 협상이라든지 혹은 국회의원 면담이나 국회 공청회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장애계분들과 같이 했었습니다.

조미연 저는 이미 장차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는 시점에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장차법이 생기기 전과 후가 뭐가 제일 바뀌었냐고 한다면 그 전에는 부당하고 위법한 장애인 차별 행위를 당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이거 당신 장애인 차별이야'라고 얘기하는데 힘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 차별을 금지한 명시적인 법이 생기고 나니까 다음에 비슷하거나 똑같은 어떤 차별 행위를 당했을 때 '당신 이거 장차법에 위반된 행위야' 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반면에 아무래도 법이라는 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질서이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사회가 계속해서 바뀌는데 어느 순간 법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좀 맞지 않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단순히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제도 개선적인 부분에도 같이 목소리를 잘 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조인영 공감의 연혁을 봤을 때 공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정하려고 노력했던 법이기 때문에 장차법 개정 작업에 있어서 공감의 구성원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소송, 진정 등 여러 사건들을 하면서 느꼈던 한계들을 추려서 이런 점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장차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22년 9월에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2·3차 심의를 하면서 나온 권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권고들이 현재 장차법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넣으려고 하고 있고 장애 내에서도 여성장애인, 장애가 있는 외국인, 특히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법조항을 통해서 보다 권리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차별받지 않도록 애써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공감 장애인권팀이었기에 해낼 수 있었던 것

염형국 사실 공감 장애인권팀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소송과 법제도 개선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과거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및 적법 절차에 위배가 된다고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었고, 장차법이 시행된 이후에 처음으로 장애인차별구제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소소하게는 그런 것들부터 다양한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른 구제 소송들 또 법적인 대응들이 공감 장애인권팀을 통해서 이루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시의적절하게 우리가 대응을 같이 했던 것이 주요했었다고 생각해요. 또 2010년 이후로는 우리 공감뿐만 아니라 희망법이라든지 동천이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장애 쪽으로 결합한 공익변호사들이 생겨났고 그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같이 대응을 했던 것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인영 어떻게 보면 현장성도 있었다고 봐요. 이전 공감 연간보고서를 꼭 훑어보면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학대 등 관련 법률지원을 염변님이 수행하셨더라고요, 아마 현장에서 요청이 있었고 그런 요청이 법률지원으로 연결된 것인데, 돌이켜보면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터닝 포인트가 됐었구나라고 많이 느꼈었어요.

조미연 공익변호사를 보면 제도 개선, 연구, 연대, 소송대리 등 활동 방식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염변님께서서는 공감에서 장애인 인권 활동을 하는



동안에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맡으시고 단체들과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염형국 장애인권 활동의 활동 기준이라고 하면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사안이 얼마나 공익성이 있고 장애인권을 증진하는 내용들이었는지 두 번째는 공감 말고 다른 법률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인지 세 번째는 당사자 구제 차원에서 그만큼 절실하게 필요로 한 내용들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공익 소송 진행을 하고 제도 개선이나 다른 여타 활동들을 진행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공감만 하더라도 아무리 24시간 일을 해도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공익 활동에 참여하고 연대하면 조금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게 사회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법연구회를 만든 것도 장애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약간 플랫폼 같은 것으로 기능을 하도록 했던 부분이 있었

습니다. 또 서울변회프로보노센터도 그런 의미에서 조금 확대하는 측면으로 작용했었던 것 같아요.

조미연 저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권팀 활동을 하면서도 장애인권과 관련된 교육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사안이든 우리 사회 그리고 또 장애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의 힘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법이 시행된 지는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 법과 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다든가 인식 개선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갖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교육 활동을 통해서 만난 분들이 공익 소송지원 신청을 하거나 재차 교육 신청을 해 주시는 등으로 인연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장애 인권,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

염형국 염전노예 사건이라든지 혹은 정신병원이나 장애인 시설에서의 인권 침해라든지 고질적으로 끊이지 않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금방 열 발짝을 가고 싶지만 사회는 열 발짝씩 가기가 어려운 것이고 우리의 활동들은 사실은 반 발짝 내지 한 발짝 앞서 내딛는 그런 작업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20년 전에 비해서 장애인 시설 문제나 혹은 염전노예 같은 노동력 착취 문제들이 사실은 발전하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다시 돌아보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염전에서 더 이상 아무런 대가 없이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없는 상태이고 또 장애인 시설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감금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최소한의 인권보장 지침이단이 만들어졌고 또 장애인 인권 관련된 기준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돌아보면 우리가 열 발짝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한 세 네 발자국은 전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에서 공감뿐만 아니라 다른 공익변호사들과 활동가들이 함께 연대하고 그런 활동들을 지속하는 것 자체가 원동력이고 큰 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조미연 염변님께서는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염형국 당연히 어려웠던 점들도 있죠. 우리가 직접 활동 전선에 있을 때 사실은 되게 막막하고 현실의 편견이나 혐오, 낙인의 벽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인식의 벽을 뚫기가 어렵고 또 법 제도를 운용하는 법원 사법 절차에서의 그런 인식의 한계도 분명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은 공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장애인권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조미연 조인영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매진했던 정신장애인 가족돌봄 체계에 관한 연구가 얼마 전에 마무리가 됐잖아요. 또 본의 아니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낸 연구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연구 사업의 보고회 좌장으로 염변님을 만나기도 했을 텐데요. 그 연구에 대한 소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조인영 우선은 토론회나 연구 보고회에서 염변님을 만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면서 항상 힘을 얻고 있기는 합니다.(웃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큰 사업이어서 흔쾌히 하겠다고 했어요. 사실 하면서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가진 능력보다 어려운 연구 사업을 맡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책임감 있게 임했던 것 같아요. 정신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조차 많이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등록을 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라든가 인적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서 등록조차 안 한다는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비롯한 인적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하고자 이 연구 사업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연구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해외 법제에 대해서 찾아보고 또 국내 논문도 찾아보면서 염변님이 이전부터 작업하셨던 여러 연구 사업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보고서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정

리하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조변님께서 하시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어요.

조미연 염변님께서 쪽 해온 정신장애인에 관련된 사업을 저도 이어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작업으로 같이 했고 이제 연구 사업까지 관련된 활동이 쪽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공감 장애인권팀의 '바라는' 활동

염형국 근래 들어서는 장애 쪽 일을 하는 변호사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같은 단체에도 변호사들이 한 20여명 가까이 결합해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활동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함께 활동하는 것 자체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공감 장애인권팀은 가장 먼저 이런 활동을 시작하기도 했고 또 선도하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약간은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영역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시도하고 도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장애인 등록 소송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장애인 차별 문제에는 관심을 많이 갖지만 정신장애인의 문제는 아직도 관심 갖는 변호사들이 많지 않잖아요. 정신장애인의 문제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공감 장애인권팀이 앞으로도 계속 정신장애인 문제는 주도해서 끌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조인영 이 자리에서 염변님을 뵈니까 20년이란 세월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책임감이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열정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염형국 지금은 공감을 조직상으로는 떠난 사람이지만 계속 공감의 후원자로서 공감의 활동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자체도 차별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의 활동과 맥이 닿아 있기도 합니다. 공감이 20년 동안 역사를 잘 만들어 왔듯이 앞으로의 20년, 50년 그 이상까지 공감의 선도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계속 응원을 하겠습니다.

조미연 친절하고 다정하신 두 분의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면서 오늘 20주년 맞이 세 인연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설치 요구 1인 시위

공감의 길을 '잇는' 활동 - ② 노동 사건 뒤 사람들을 연대와 투쟁으로 엮다

2023년은 공감 취약노동팀에게 여전히 희망과 좌절, 분노와 기쁨, 그리고 슬픔의 파도에 몸을 맡겼던 한 해였습니다. 2024년으로 넘어오며 아주 오래된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했고, 새로운 사건들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옛 동료들을 다시 만나기도 하고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투쟁하는 당사자들과, 날카로운 시선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시민사회와 때로는 부끄러움으로 때로는 벅찬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무엇보다 후원회원님들 덕분에 제약 없이 사건을 맡고, 필요한 곳에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법제도와 현실 사이의 틈을 채우는 취약노동팀 활동

방송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투쟁하는 '엔딩크레딧'과 2023년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작가 근로자성 확인 소송, KBS 드라마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등 여러 차례 사건을 진행하며 얻게 된 성과와 한계 속에서 나아가갈 방향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의 주도로 노무사·변호사·상근 스태프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보고서, 원청갑질 대응 보고서를 만드는데 참여했습니다. 서울시어르신 돌봄종사자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지원과 요청, 그리고 센터의 풍부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현장 성희롱 대응 방안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돌봄노동은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에 있지만, 노동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의 현실화, 성희롱 피해 발생 시 조치 현실화를 위한 방안, 최소 근로시간 보장, 적정 임금 수준 마련 등의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법안이 2023년 11월 발의되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에도 참여했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비록 개정안이 통과 되지는 못했지만, 시대의 흐름은 거부할 수 없으므로, 좌절보다는 희망으로 나아가갈 예정입니다.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에 참여하며 정부의 산업안전 관련 법령 개정 시도를 감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이후 3년의 유예 끝, 비로소 예정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 유예 연장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더 이상의 생명을 잃지 않게, 원래 법의 취지였던 중대재해 예방으로도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기관의 사용자가 임의로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한 취업규칙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고, 2024년 초 해당 취업규칙이 공휴일을 유급휴일 규정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4년 2월, 2019년부터 진행되어 온 아주 오래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전일제에게 지급되는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받지 못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기요양현장 성희롱 대응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발제

2023년에는 2021년부터 1심이 진행되어 왔던 아파트 안내원들의 휴게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와 고용노동청 체불임금을 신고를 했다고 안내원들을 내보내라고 요구한 입주자대표회장의 갑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 되었습니다. 아파트 직원들의 형식적인 사용자는 관리회사이지만 아파트 직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없는 아파트 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이 아파트 직원들의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인증샷 캠페인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직장에서의 우위와 지휘를 이용한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일 필요는 없다는 판시와 함께, 경기보조원을 괴롭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골프장 직원과 경기보조원을 보호하지 못한 골프장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온라인 콘텐츠 운영 회사에서 모니터링 업무를 자택에서 수행하였지만, 회사의 원격 지시와 감독을 받던 재택근무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3년 말 비슷한 업무를 하던 노동자들의 노동위원회 부당하고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023년 말 뮤지컬 앙상블 배우는 근로자라는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공연예술 분야 종사자들에게 노동권 보장! 사회복지무원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을까? 최선을 다해 도전을 해봤지만, 1심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시 항고하여 재도전 중입니다. 두 사건 모두 2024년 2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동은 '일상' 그 자체입니다.

노동현장에서의 침해, 노동 분쟁은 일상적 인권의 제의 신호탄이자, 일상에 균열을 내는 시도입니다. 일상을 살아가야 하면서 일상의 균열을 내고 이에 맞서기로 하는 선택, 그리고 다시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기로 하는 선택은 매 순간 선택의 용기, 포기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취약노동팀의 활동은 그 용기를 나누는 사람들 곁에서 시작됩니다. 공감의 취약노동팀의 시작부터 2023년까지 매 해를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법제도와 현실의 틈을 메우며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고된 길이지만 앞으로의 여정에도 함께하길 바라며, 미리, 다시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공감의 길을 '잇는' 활동 - ③ 국제인권센터 난민과 공감한 20년

2006년 최초의 버마 & 중국 난민 승소 사건, 2012년 아시아 최초 난민법 제정, 2018년 제주 예멘난민 상황, 2021년 외국인보호소 난민신청자 고문사건 등 한국사회의 '난민'과 관련된 중요한 순간순간에 공감은 늘 난민과 함께 하였습니다. 2004년 공감에서 한 명으로 시작한 난민지원 활동을 2024년 이제는 4명의 구성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난민, 그리고 난민인권을 위해 일하는 이들과 함께 한 지난 20년, 앞으로의 20년 같이 보실까요?



왼쪽부터 황필규 김지림 박영아 강지윤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퀴어문화축제 부스 참가



난민영화제 공감 부스

첫 난민소송과 함께 공감도 성장하다

공감이 이주민 인권 옹호활동을 이어오던 2004년 말, 누군가 이주민과 비슷하지만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인 난민 지원은 누가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공감의 난민 인권 옹호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난민지원인정과 관련된 판결이 패소 판결 단 한 건이던 시절, 난민과 관련된 모든 국문자료를 다 모아 읽어도 채 하루도 걸리지 않고 하루 만에 국내 최고의 난민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시절, 국회 토론회 전문가 패널로 초대받았고 유엔 난민기구로부터 버마민주화활동가 난민소송을 담당해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난민신청 후 5년을 기다리다가 순식간에 불허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게 된 9명의 버마민주화활동가들은 불신과 불확실성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온갖 자료들을 뒤지고 난민인권을 위해 헌신해 온 일본변호사의 도움도 받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원고 대부분이 승소하며 공감은 국내 최초의 난민사건 승소 변호사가 됐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은 공감이 난민을 조금씩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 난민과 관련된 법제와 관행을 공부하는 과정이기도 했고 한국에서 난민 문제를 공론화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몇몇 사건을 거치면서 난민 관련 법제와 관행의 심각한 문제들을 절실히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해결을 넘어 사회 변화로! 난민의 영역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심의 대응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양상한 출입국관리법 조문 몇 개가 난민 관련 법률의 전부였습니다. 미등록이주민을 단속하던 출입국공무원들이 난민심사에 곧바로 투입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난민의 보호 수준이 세계 100위권 밖에 머물렀습니다. 난민제도의 남용 혹은 소위 '가짜 난민'에 대한 경계가 사실상 난민정책의 전부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감이 실무자와 연구자, 단체 그리고 난민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로 결집된 공감과 난민 관련 단체들은 난민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1년 넘게 유엔난민기구 문헌, 여러 나라의 난민법제를 조사하고 난민법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전체 난민신청자, 난민신청자의 실태조사를 조사하고, 서울지방법원사회를 통해 입법청원을 하고, 국회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를 주도했습니다. 한 단체 사무실 방바닥



2018 한국유엔체제학회 발표

에서 십여 명이 둘러앉아 저녁 늦게까지 여러 차례 끝장토론을 하며 머리를 맞대었던 순간, 국회, 서울역, 대학로, 청계천에서 공감이 주도해 준비한 난민법 제정을 위한 세계난민의 날 맨스플래시몹을 펼쳤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12년 난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취업허가, 생활보조금 지급, 통역 제공 등 난민과 난민신청자의 실제적, 절차적 권리가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난민법 제정을 반대했던 법무부도 유엔에서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이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의 부당한 심사와 구금, 부실한 이의신청절차 등 난민법에는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난민 주거 시설인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설치, 제주도 예멘 난민들을 둘러싸고 난민에 대한 혐오와 편견, 차별의 분위기가 점점 더 팽배해지면서 우리는 새로운 과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취약한 이들 중에서도 취약한 이들, 소수자난민과 함께 하다

2013년 처음으로 성소수자 난민소송을 대리하면서, 공감은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성소수자,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물이해가 고스란히 법무부와 법원의 난민심사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성소수자난민에 대해서 다른 난민사유(정치, 종교 등)에 비해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를 뒤집기 위해 공감 구성원들이 함께 해외 법제를 뒤지고, 판례를 번역하는 치열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1%의 확률을 뚫고 법무부단계에서 난민 인정을 받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별 난민 사안을 넘어 소수자난민에 대한 인식 자체를 개선하는 일은 공감 구성원만으로는 어렵는 일입니다. 2017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성소수자인권단체, 난민인권단체, 이주인권단체, 그리고 개인 연구자, 활동가들이 만나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네트워크와 함께 공무원, 활동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간담회를 진행하고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소수자난민의 존재를 알리고 난민심사 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수자난민 지원활동을 통해 성소수자, 감염인난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보호소에 갇힌 난민, 장애를 가진 난민과 같이 이중 삼중의 소수자성을 가진 난민들을 만나며, 난민 지원 영역에서 공감의 역할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3 한국외국법자문사협회 - 공감 성소수자난민 국가정황정보 보고서 발간

국경을 넘어 난민 보호에 나서다

난민소송을 막 시작한 무렵 캐나다에서 난민인권 관련 국제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짜고짜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난민소송을 시작했는데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이 국제회의 참석을 지원해주면 모든 세션에서 발표할 용의가 있다고. 우려곡절 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난민에 대해 무엇을 모르는지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난민이 국경을 넘듯 난민 보호도 국경을 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 회의에서 만났던 몇몇 아시아 활동가들과의 인연이 아시아태평양지역 난민인권네트워크의 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공감은 이 네트워크의 의장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그 결성과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매년 혹은 격년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소지역별, 주제별 다양한 워킹그룹을 구성해 실질적인 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한국의 법제를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난민법 논의에 자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자유권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 한국 인권상황 심의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직접 상황을 설명하는 유엔 차원의 난민인권 옹호활동도 끊임없이 진행해왔습니다.

새로운 구성원이 말레이시아의 국제단체에서 난민인권 보호활동을 수행한 자신의 경험을 공감에 더해주었습니다. 현지에서 체계적인 활동을 하며 아시아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난민 인정과 보호를 이룰 것인가를 고민해 온 경험 덕분에 공감의 난민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동안 공감이 축적해 온 그리고 새로운 구성원들이 더해주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활동 경험과 네트워크가 국제연대활동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기획 교육

공감 20주년을 축하하며 공감은 저의 오랜 꿈입니다

신새미
자원활동가

중학생 때 책 너머 바라본 '공감'은 멋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훌륭한 단체였습니다. 공감에는 착한 사람들, 희생하는 사람들,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런 어른이 되고 싶었기에 공감의 책을 읽은 후로 제 생활기록부 장래희망란에는 늘 '공익변호사'라는 단어가 자리하였습니다.

대학생 때 자원 활동 중 바라본 '공감'은 뛰어나게 멋있는 일이 아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크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당연해야 할 일을 당연하게 만드는 단체였습니다. 장애인권팀에서 활동하면서 사례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법률가만큼 법에 익숙한 장애 단체 활동가들, 활동가만큼 장애인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법률가들. 이들이 같은 목표를 품은 채 이야기 나누는 현장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의 당연한 일상을 위해 부단히 연대하는 '공감'은 세상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기꺼이 부딪히는 사람들, 묵묵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곳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며 제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률가를 꿈꾸며 바라본 '공감'은 도움이 필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의 활동은 그 성격상 기부회원의 도움으로 지속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는 다짐과 함께 지난해 말부터 월 2만원의 기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공감의 활동을 응원하고자 시작한 기부였지만 막상 저에게 돌아오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더 크다고 느낍니다. 기부 회원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기부 회원이 단체의 활동에 금전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공감의 활동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주고 서로를 지지하는 역할 또한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감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다독이고, 응원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더욱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더 나중에는 공감의 뜻과 생각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서 공감이 가고자 하는 길이 멋지고 특별한 길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당연한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20년간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공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래희망란에는 늘 '공익변호사'
#공감 #장래희망 #위로공동체 #기부회원

공감 20주년을 축하하며 바라던, 바라던, 바라는

강유정
2022년 동계 실무수습생

안녕하세요, 저는 공감에서 27기 자원활동가로 활동하고 2022년 동계 로스쿨실무수습을 마친 강유정입니다. 공감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이후 벌써 6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공감의 발자취를 늘 응원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공감 20주년을 축하하는 글을 쓸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첫 번째 '바라던' 만남 - 자원활동가로

저는 자원활동을 하면서 '직장갑질119' 활동에 참여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애견미용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여러 사안을 접하고, 법률과 정책은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법과 정책에 보호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를 목격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공감에서 저는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는 법조인을 향한 작은 씨앗을 품게 되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던 저에게, 공감과의 첫 만남은 실로 '바라던' 만남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라던' 만남 - 실무수습생으로

공익변호사를 희망하며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처음의 포부들은 희미해져 가고 있을 때쯤 다시 공감을 찾았습니다. 실무수습 중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기록에 관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적 성별정정은 개인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사법적 정의이므로 당사자 개인의 구체적 삶과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토서를 작성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나중에 사건 경과를 보니 신청인은 허가 결정이 나 적어도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일상에서 자신을 매순간 설명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무수습 기간은 공익변호사의 일과 삶에 대하여 간접 경험할 수 있었던 기회였고, 자원활동가 프로그램을 통해 뿌려진 작은 씨앗은 이 기간 동안 작은 싹으로 자라나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는 법조인의 길을 더욱 힘차게 걸어갈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공감과의 두 번째 만남은 진로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었던 '바라던' 만남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만남을 기약하며,

아프리카 속담 중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권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경계를 보다 멀리 확장하는 공감의 결에는 동료들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과 후원자들이 항상 함께했습니다. 20년 동안 바삐 그리고 함께 걸어온 공감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공감의 앞으로를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로스쿨실무수습 프로그램을 통해 뿌려진 작은 씨앗
#공감 #로스쿨실무수습 #바라던 #20주년 #응원

숫자로 메길 수 없는 동행 '자립' 성적표

이 소 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2기 자립지원사업

2015년 봄, 공감에 제출한 자립지원사업신청서를 찾아 읽어봅니다. 9년 전, 있어 보이려고 부풀렸던 사업 계획서가 부끄러워 숨고 싶어지네요. 당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와 지금을 비교해보며 동행은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가능해봅니다. 가장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함께 부리가 되어줄 동료들입니다. 2022년 다시 혼자 가 되면서 지역은 경험을 쌓고 떠나려는 곳이지 남으려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무치게 겪기도 하였는데, 결국에는 함께할 빛나는 동료들(이기림, 위서현, 위석현)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자립하지 못한 4천만 원 적자 운영성과표에 한숨이 나기도 합니다. 동시에 든든한 버팀목 460여 분의 후원회원을 보며 힘을 냅니다. 동행이 써내는 모든 서면 뒤에는 이분들이 계시기에, 부족한 글에도 힘이 실리니까요. 동행의 지난 변론표를 보며 높은 승률에 웃다가, 이겨야했는데 지고 말았던 사건번호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간을 쪼개어 써내려간 연구보고서들과 그 안의 이루어지지 않은(그런데 이루어내고 싶은) 정책제언들을 보면서 단기 목표들을 조정해보기도 합니다.

공감 자립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가장 마음에 걸렸던 부분은 '자립'이었습니다. 과연 2년 안에 조직도, 개인도 지속가능하게 자립할 수 있을지, 떠나는 동료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땐 끝이 없는 막막함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였습니다. 8년 반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재정자립' 하지 못한 것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자립'을 조건으로 혼자인 저에게 지속가능성까지 이루어낼 것을 기대 받는 것이 한편으로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공감 자립기금이 있어 가능했던, '지역' 시민들의 풀뿌리 후원을 바탕으로 설립된 유일한 비영리 공변단체 동행, 그럼에도 정말 잘해왔습니다. 지난 9년의 동행에 점수를 준다면 후하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동행은 2025년 10주년이 됩니다. 이제 동행은 '지역'에서 '동행'만이 가능한 주제를 찾아 '전남 더 깊숙한 곳으로' 목소리가 지워진 당사자를 찾아나서 분사무소를 세우려 합니다. 지역 가까이에서, 염전 등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노동력 착취, 농어민과 계절이주노동자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자도 농어민의 목소리로 지워지지 않도록, 더 깊게 지역으로 나아가 만나야 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적자재정위기를 해소하지 못하였지만, 부리가 되어 줄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 이겨낼 듯합니다.

공감의 '바랐던, 바라던, 바라는' 20주년을 마음 깊이 축하합니다. 공감이 걸어가는 그 길을, 동행도 뒤따라가며 그 나머지를 이뤄내기를 바라봅니다. '달이 차오른다~! 가자~!'



지역 시민들의 풀뿌리 후원으로 설립된 공변단체 동행

#자립지원사업신청서 #동행 #자립 #풀뿌리 후원 #달

부당한 현실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도전, 공감을 응원합니다

소송당사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약자 #소수자 #성별정체성 #공익 소송 #20살

안녕하세요. 공감의 20주년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노력하시는 공감의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는 공감의 공익소송을 통해 성별정정을 하게 된 트랜스젠더 여성입니다. 저는 과거 성별정체성 관련 고민을 겪다가 회사에서 문제없이 다니게 해 줄테니까 괜찮다는 말에 정체성과 관련해 이야기했다가, 수개월간 각종 부당한 지시와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오랫동안 일했던 곳에서 결국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외관과 이력서상의 성별, 주민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는 회사마다 번번히 탈락하였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회사들에서도 저희 그런 점을 약점으로 잡아 마음에 안 들면 정리해고식으로 갑자기 내보내거나 각종 부당한 계약, 업무 및 지위를 부여하는 등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차별을 받았고, 이에 경제난으로 아르바이트라고 해보려 했지만 이 또한 주민등록증의 인증이 필요한 부분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든 주민번호가 공개되는 현 제도에서는 성별정정을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 삶을 살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공익 소송을 지원하는 공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공감의 변호사님들은 제가 겪은 성별 불일치로 인한 인권침해적 사안들에 대하여 공감해 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사건 동안에도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쫓겨나가거나 도저히 버틸 수 없어 나오거나를 반복하는 가운데 함께 전략을 짜고 여러 자료를 준비하였고 한 번의 기각을 거쳐 두 번째에 도전에서 마침내 '성별의 정정을 허가한다'라는 법원의 주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헌법 1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있고 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역사와 사회제도는 헌법 제37조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에 충실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수의 편의를 위해 만든 많은 제도들이 정작 소수자에게는 삶 자체를 위협하는 걸림돌로 작용하는데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부족합니다.

잠시 위로를 한다면 마음의 위안이지만 현실이 바뀌면 그것에서부터 미래가 바뀌는 것이기에, 저는 공감이라는 사회의 부당한 부분의 실질적인 개선이 되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소송 지원 및 법률과 제도의 개선 등에 다각적인 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미래를 바랐던, 바라던, 바라는 20살의 공감을 축하드립니다.

신입 구성원에게 듣다 공감의 길을 ‘낼’ 사람들

공감에 새롭게 자리를 잡고 각자의 활동을 꾸려가기 시작한 구성원이 많아졌습니다. 벌써부터 굼직한 사건 현장에서 역할을 찾아가며 공감의 연대기, 공익법 활동, 선배들과의 협업을 배워가며 새로운 길을 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길을 낼 사람들, 이들이 ‘바라는’ 길에 대해 들어봅니다.



왼쪽부터 강지윤 조인영 강은희

이야기 나눔이

공감 2023~ | 강지윤

안녕하세요.
저는 공감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강지윤입니다.
곧 신입구성원을 채용한다는데 앞으로 어떤 별명을 붙여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야기 길잡이

백소윤 임기화

공감 2022~ | 조인영

저는 공감에서 ‘상큼’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막내가 아니지만
공감에서 여전히 철없이 상큼발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공감 2021~ | 강은희

안녕하세요.
저는 공감에서 ‘시끄러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독서실같이 조용한 공감에서 수다와 간식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Q1 ‘바랐던’ 공감의 첫 이미지

강은희

저는 사실은 공감을 특별히 잘 알진 않았어요. 원래는 로스쿨을 다닐 때 ‘희망을 만드는 법(이하 희망법)’에서 실무수습을 해서 희망법이 조금 더 익숙했고 공감은 희망법이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오래된 곳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소라미 변호사님의 수업을 한 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노동팀에서 일하던 윤지영 변호사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일도 열심히 하고 멋진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제가 구독하는 유튜브채널에 장서연 변호사님이 되게 자주 출연하셨는데요. 강아지 세 마리를 키우고 야구를 좋아하는 변호사님이다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해 구직활동을 하면서 나름의 몇 가지 기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처음 일을 시작하는 곳니까 일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그 사람이 여성 변호사님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업계에서 여성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겪는 고충들이나 관점이 조금 궁금해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공익 전담은 아니지만 공익적인 지향과 색채를 가진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왕이면 그 영역이 노동을 많이 다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침 공감에서 공고가 나왔는데 노동팀이었고 그리고 또 윤지영 변호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했죠. 구성원들의 개성도 강하고 정말 너무 열정적으로 그리고 너무 진심으로 매번 고민을 하면서 일하는 게 저도 자극이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공감뿐만 아니라 공감을 통해서 연을 맺는 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공감이 되게 살아 숨 쉬는 생명체 같아요. 윤지영 변호사님과 같이 일하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일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윤변님은 너무너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행운이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어요. 지금은 더 이상 같이 일하지는 않지만 공감을 통해서 인연을 맺은 여러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매번 되게 새로운 자극들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인영

저는 대학 때부터 공감이 워낙 유명하니까 공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못할 것 같은 일이라고도 생각했어요. 슈퍼우먼이라던가 슈퍼맨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단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해 보이지만 내가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며 좋은 일을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공감을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면접 볼 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굉장히 따뜻하고 자유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면접 분위기도 그렇고 물어봐 주시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더 마음에 와 닿았고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는 일들이 재미있기 어려운 일들인데 공감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공감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일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생각하는 공감은 다정하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감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하는 활동가들을 보자면 그 열정



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다니면서 오히려 저는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 일을 왜 하게 되셨고 이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다니는 것 같아요.

강지윤

저는 예전에 유엔난민기구에서 일할 때 구 난민지원네트워크와 함께 난민영화제를 기획하면서 공감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어요. 당시 이미지는 공익법센터 어필이랑 비슷한 변호사 단체인데 조금 더 점잖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공감에 입사하기 직전엔 법무부에서 잠깐 근무했는데요, 거기서는 황필규 변호사님이 엄청 유명하셨어요. 정부-시민사회 간담회에서 호통을 치셔서 모두 두려움에 떨었다는 일화가 부서에 전설처럼 내려오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직접 뵈 때 엄청 긴장했는데 너무 친근하고 편하게 해주셔서 안심했죠. 공감에 들어오기 전에 공감 변호사님들, 그리고 다른 시민사회 활동가분들은 저에겐 동경의 대상이자 연예인, 슈퍼히어로 같은 분들이었어요. 이제 들어오고 조금씩 친해지니까 서로 인간적인 모습도 보면서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이런 분들과 동료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Q2

요즘 내 업무나 내 삶에 있어서의 '뜨거운 감자'

조인영

저는 장애인권과 재난인권을 하는데 이런 인권에서 같이 하는 활동가들마다 특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재난 참사 활동가들은 24시간 돌아가는 일들을 대응해야 하는데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장애인권을 하는 활동가들은 되게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해내야 해요. 그럼에도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 하고 계속 계획하고 이러한 열정이 어디서 나오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저는 공감에서 일하는 동안 같이 일하는 즐거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졌는데 오히려 공감에 와서 같이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특히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 평지사례회의가 있는데 저와 같은 저연차의 변호사들이 선배 변호사들, 활동가들과 같이 사례회의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서로 활동을 나누는데, 지쳤을 때마다 거기 가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열정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힘을 얻고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되게 즐겁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강은희

저는 요새 엔딩크레딧이라는 단체랑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엔딩크레딧이 방송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이에요.故이 재학PD가 청주방송 PD이었는데 그 당시에 프리랜서로 굉장히 오래 일을 하셨고 근로자성 인정 소



송을 하다가 1심에서 패소하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결국은 2심에서 근로자라는 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근로자성 소송들이 많았고 소송에 함께했던 당사자분들과 활동가들, 변호사들, 노무사들이 그 이후로도 계속 활동을 하시면서 방송 비정규직 문제를 알리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엔딩크레딧이란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 방송 비정규직 문제가 법적으로 이겨도 다시 회사로 돌아가면 반드시 회사에서 정규 근로자로 계약을 맺거나 같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받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투쟁이 길어지거든요. 근데 만난 분들이 다 하나같이 그 법적인 긴 투쟁 기간을 견뎌내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회사에 가서 다시 차별을 마주하면 어떤 분들은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하고 본인들을 차별하는 노동조합이나 회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옳다고 믿고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힘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갈 때마다 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힘이 생기고 나도 조금 더 힘을 내서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

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법적인 판단을 내리고 비관적으로 볼 때도 있는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걸 저 혼자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논의를 하면서 또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투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의 권리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냥 그 에너지를 저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너지지 말아야겠다 이런 반성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뜨거운 감자는 사실 엔딩크레딧을 많이 홍보하고 알리고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영변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일하는 활동가분들이 되게 오래 일을 하셨잖아요. 가끔 어떻게 아직도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날 카로움을 가지고 일을 하지? 본인의 삶은 그럼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있지?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같이 일하는 활동가분들과 나누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오래 일을 할까 그런 고민들을 시작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강은희

맞아요. 저도 20주년을 앞두고 공감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과거 활동도 봐야 하고 공감의 미래가 저희 사무실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강지윤

저는 요즘 공감이 소속되어 있는 '기업과인권네트워크'에서 한국 기업의 해외 인권침해 사례 대응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일을 할수록 금융시스템에 대해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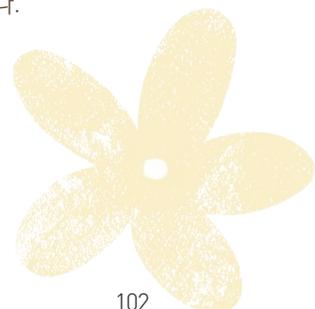
예를 들어, 해외에서 대규모 자원개발사업 때문에 원주민의 강제이주, 환경파괴 등 피해가 발생하면 보통 눈에 보이는 개발자들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캠페인을 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의 가능하게 하는, 돈을 쥐고 있는 투자자, 은행, 보험사들은 잘 보이지 않지만 사업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죠. 여기에는 각국 수출입은행 등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공기관, 그리고 근로자의 퇴직금 등으로 운용되는 공적연기금도 포함돼요.

그러나 금융기관의 투자나 용자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최근 유럽연합에서 논의 중인 공급망실사법안에도 협상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어요.

그래서 작년 말과 올해 초 강은희 변호사님과 두 차례에 걸쳐 방콕에서 미국 NGO가 진행하는 'Follow the Money'라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의 자금이 어떻게 조달되고 그 가치사슬 내 행위자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공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왔어요. 이 내용을 국내 기업과 인권 운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요즘 저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조인영

저도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공감에 오고 나서 내 개인이 아니라 공감의 정체성이라든가 공감 조직 자체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익 변호 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리고 있을까란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에 대해서도 알리고 공익 변호 활동에 대해서도 알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Q3

바라던 일이지만 '고민'도 있다

조인영

저는 되게 모순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현장과 가까워지고 싶고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쉬고 싶고 나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조용히 멍을 때리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카페에서 종일 책을 읽거나 아무 사람도 안 만나고 두문불출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모순적인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집에 있으면 너무 평안한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밖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모순적인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게 고민이고 이 균형을 잡는 게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은희

저도 하루가 36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일도 하고 근데 난 사실 놀고 싶고 그래요.

조인영

문화생활도 하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연극도 보고 싶고 미술관도 가고 싶고

강은희

맞아요. 멍도 예쁜 곳에서 그냥 때리고 싶고 전시회도 가고 싶고 혼자 자전거도 타고 싶어요. 그런데 일도 잘하고 싶어요. 사실 일에서도 막 더 파고 싶은 것들도 몇 개 있거든요. 그러면 박사를 하고 싶나 생각이 들다가도 그냥 자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

조인영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선배들한테 '너만 변호사가 아니다.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지만 항상 욕심이 생기게 돼요. 송무할 때 조금만 더 찾아보고 조금만 더 생각하면 더 괜찮은 게 나올 것 같은데 더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은희

그니까 되게 억울해요. 내가 나만 변호사이고 나만 변호사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한 줄만 더 적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나한테 맡겼잖아요. 본인들이! 한 줄만 더 적으면 될 것 같고 토론회도 나가고 그러면 이거 조금만 더 깊게 파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조인영

공감도 똑같아요. 인권 교육 조금만 더 나가면 공감 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연대 단체들 확장하면 공감을 알릴 수 있고 활동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여력이 되지 않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강지윤

아직 큰 고민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어느 쪽으로 더 전문성을 쌓아야 할지 계속 고민할 것 같아요. 지금은 국제인권센터에서 다루는 모든 영역에 관심이 있어서 각 연대단위에 어느 정도 결합하고 그때 그때 주어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다양한 영역을 접하는 것이 재미있고 이런 의제들이 어떻게 교차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도 영역들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 장기적으로는 영역 내 특정 의제에 집중해서 전문성을 쌓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아직은 그 의제가 무엇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하지만 아직 충분히 발전되지 않았으면서도 흥미롭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아이템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도 시간과 경험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해요.

Q4

마음의 균형을 찾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

조인영

약간 이것도 모순적인데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그냥 혼자 그릭요거트를 먹으면서 혼자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하는 게 행복인데 공감에 왔을 때는 인생네컷도 찍고 싶고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안 맞춰주잖아요.

강은희

맞아요. 맞아요!

조인영

그쵸? 인생네컷 찍어가지고 문에 붙이면 얼마나 예쁘까!

강은희

구체적으로 인생네컷은 아니긴 했는데 나도 뭔가 같이 하고 싶은데 솔직히 낱자 잡아놓으면 저도 귀찮을 것 같긴 한데 나도 그런 사진 찍고 싶어요. 제 친구들은 회사 동료들과 찍었어요. 인생네컷!

강지윤

저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할 때 혼자 코인노래방에 가서 더 처절하게 슬픈 노래를 부르고 나면 기분 전환이 돼요. 예전부터 직장인밴드를 하는 것이 낙이었는데 몇 달째 쉬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지나가면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Q5

‘바라는’ 공감, ‘바라는’ 나

강은희

지금처럼 그냥 꿈을 간직하고 계속 처음에 얘기했던 법을 다루면서 법을 도구로 사용하면서도 법을 비판하면서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단체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그냥 지지치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꿈을 계속 간직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꿈을 단단하게 현실을 딛고 같이 일하는 활동가들과 당사자들과 같이 단단하게 현실의 발을 딛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 더 바라는 게 있다면 길에서 지칠 수도 있고 멈춰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는 큰 길에서는 계속 가고 있다는 마음으로 하는 공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거기서 난 뭘 할 거냐? 나는 조금 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고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욕심을 너무 부리지 않게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슈에 대한 욕심들이 하나하나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그런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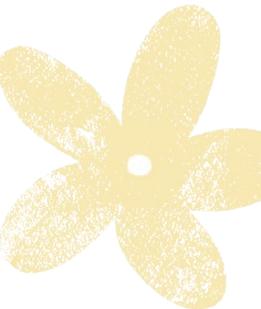
조인영

저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밖에서도 그렇고 안에서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을 때 공감은 무너지지 않는 어떤 칼 같은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예리하고 모든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의하는 만큼 더 날카롭게 바라보려고 하고 그렇게 대응하려고 하는 면이 있어서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모습을 유지하였으면 좋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좀 더 따뜻한 공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밖에 사람들에게도 좀 더 따뜻하고 안에 구성원끼리도 좀 더 따뜻해서 누구나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항상 공감은 뭔가 저에게 꿈의 직장이고 희망이 있는 곳이었는데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사람들 또는 공익변호사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공감이 항상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강지윤

저도 모두 지지치 않고 스스로 잘 돌보면서 오랫동안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외면하기 어려운 사건들, 의제들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본인의 여력에 대해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자신을 위한 시간도 충분히 가지시길 바래요. 그래야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오래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출범한 지 20년, 이제 어엿한 성년으로 우뚝 섰습니다.

박시환
공감 후원회장

2004년, 우리 사회에 본격적인 공익변호사 단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던 시절에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몇몇 젊은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만든 공익변호사 단체가 ‘공감’입니다. 그로부터 20년,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공감’의 구성원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사회의 어둡고 낮은 곳곳을 찾아 사랑과 봉사의 법률지원에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감’이 이룬 대표적인 결실을 보면, 이주노동자·성매매피해여성 등을 위한 법률지원, 시각장애인 지하철 추락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버마 출신 민주활동가의 난민자격 취득을 위한 행정소송, 비닐하우스촌 전입신고 수리거부에 대한 취소소송, 스토킹 피해 여군장교의 항명죄 사건 무죄판결, 용산 화재참사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표현의 자유를 위한 국제 인권네트워크 구성, 유엔난민인권규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난민법 제정, 알바청소년과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소송·입법지원, 세월호 참사 유가족 지원, 아파트 경비원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 헌법불합치결정,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이주노동자 주거권 개선을 위한 조사 및 법제 개선, 시멘트회사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복직, 미군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청구 소송,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 소송,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쌍용차 해고 노동자 복직을 위한 법률지원, 성전환 수술 미시행자의 성전환 허가 결정,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활동, 홈리스 차별에 대한 인권위원회 진정 등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마다 시대의 고비고비마다 어느 한 곳도 소홀함이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활동을 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감’은 다양한 법률지원 활동을 하면서도 비용이나 대가를 전혀 지급받지 않고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모든 재원을 오로지 기부자들의 기부금만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빠듯한 자금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한시도 쉴 틈 없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감’ 구성원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저 ‘눈물겹다’라는 말 밖에는 달리 그들의 노고를 표현할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이겨내고 이제 어엿한 성년으로 성장한 ‘공감’과 그 구성원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여 우리 사회의 춥고 어두운 곳을 환히 비추는 따뜻한 등불로 훨훨 타오르기를 기원합니다.

공감과 함께하는 사람들

20th ANNIVERSARY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주년 기념 자료집

함께하는 사람들 이사회

김이수 이사장

'공감'은 공감능력이 충만한 변호사들이 법과 보편적 인권이라는 준거 하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은 후원자들과 '공감'이 함께 꿈꾸는 소망입니다.



신경숙 이사

우리 곁에 공감,
흔들리는 곳에
언제나
든든한
공감

한상희 이사

공감은
언제나
당신 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문영화 이사

성년이 된 공감과
짧지 않은 시간동안
공감의 그늘이 되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김유니스 이사

공감은
우리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함께 공감해주세요.



데이빗 워터스 이사

공감과
함께 뛰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김영준 이사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에 힘없고
잊혀질 수 있는 분들을 위해
법을 통해 공감을 이끌어내고
희망을 만들어 온
공감 구성원 여러분께
무한한 경의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준리 이사

20살이 된 공감과
같이 한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니다.
사회의 약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공감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변연식 이사

20년이라니...!!
공감하며
함께 해 오신
한분 한분의
얼굴을 떠올려봅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김현수 이사

법이
사랑 그리고 정의와 만나는 곳
공감이 바로 그 곳입니다.
법이
치유의 광장이 되는 곳
공감이 바로 그 곳입니다.



윤재운 이사

사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 공기, 물 그리고 공감

변영선 감사

20세 청년이 된 공감,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더 많이 공감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오종석 감사

길이 끝나면 거기
새로운 길이 열린다.
겨울이 깊으면 거기
새 봄이 걸어 나온다.
정직한 공감이 희망의 시작이다.

함께하는 사람들 후원·자문 위원회

박시환 후원회장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
우리의 공감은
우리 모두의 사랑과 후원에서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공감을 도읍시다!!!



이지은

따스한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용기 있는
발걸음을

박영숙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공감의 귀한 마음과 행보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이경희

공감이 있어
좀 더 따뜻한 세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고
행복합니다.



주영진

공감 구성원들을 보며 배웁니다.
공감과 함께 해서 행복합니다.
공감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습니다.

한미미

낮은 곳을 바라보며
좁은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연욱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날을 위한
공감의 긴 여정에
함께해 기쁩니다.
다음 20년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이형근

아무도 옆에 없는 사람들 곁에
공감이 항상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오래,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노연희

항상 응원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구성원

김지림

20년 전에도,
오늘도,
그리고 20년 후에도
공감은 늘 같은 모습으로
소수자의 곁에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지윤

한걸음 더 나아갈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미연

앞으로의
20년도
공감하고 싶습니다.



박영아

오늘도
하루 수습하며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

조인영

가슴 뛰는 삶을 찾아
헤매지 않았지
가슴 아픈 이들과
함께하니
가슴이 떨려왔지
(박노해 '진실' 중)



신옥미

고맙습니다.

장서연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경로가 공감 입사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게 해 준 분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
사건 당사자들, 기부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주영

여전히 공감하고,
공감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감하고,
공감 받고 싶습니다.



강은희

빛나는 당신을
만날 수 있어
행운이었습니다.



임기화

'공감'이라는
아름다운 페이지를
함께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필규

여전히 꿈을 꾸니다.
좀 더 달라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함께하기에
정말 고맙습니다.



백소윤

벌써 5번째 봄!
익숙해지지 않는
일들 투성이어도,
언제 겨울이었느냐는 듯
또 반갑게 맞을 수 있는 건
당신 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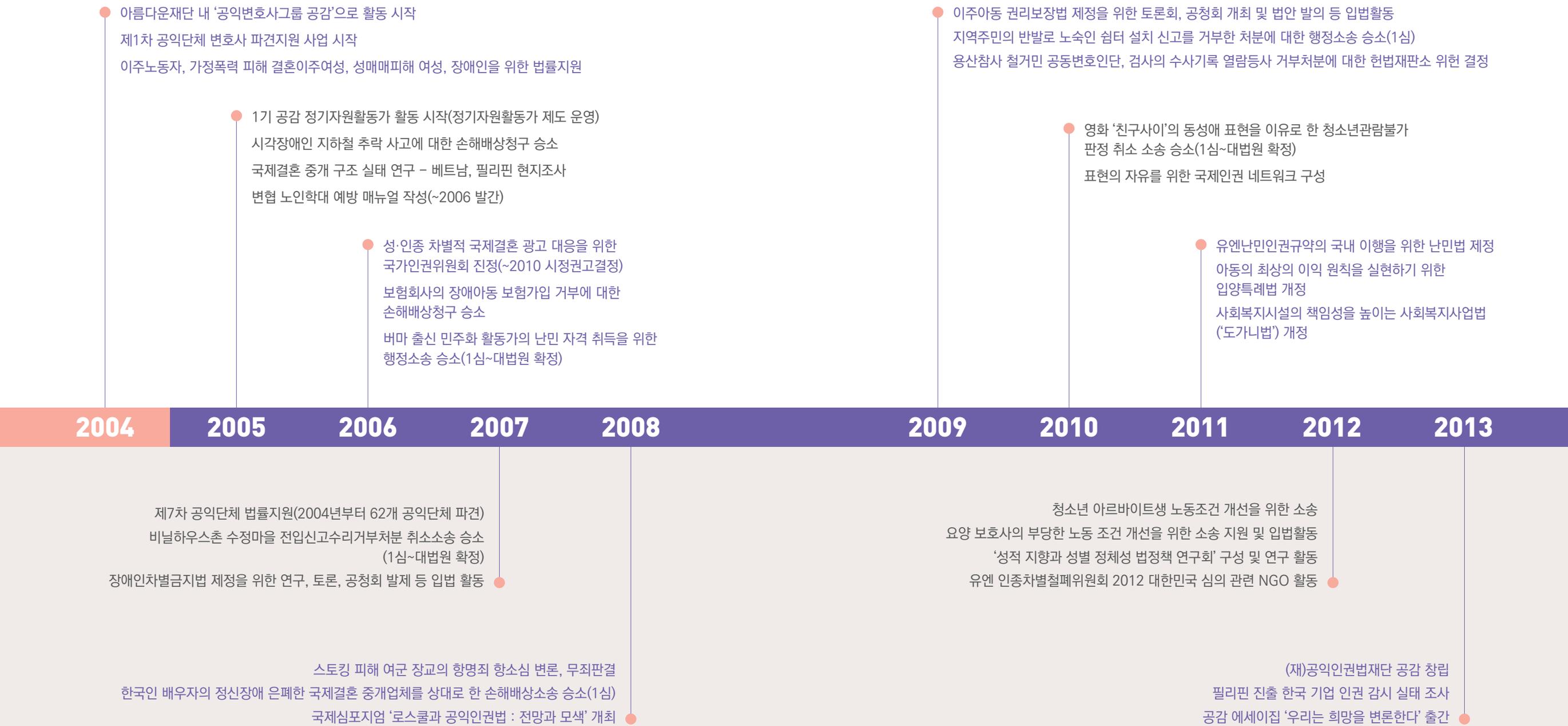
은채희 왕미양 옹성진 우경주 우은주 우지민 우하진 원명진 원유호 위은진 유금녀 유다운
 유덕기 유동철 유동훈 유록수 유민상 유선애 유선영 유성애 유수정 유순희 유승룡 유승민
 유시화 유연실 유영민 유영일 유용덕 유원 유원규 유원정 유이슬 유인선 유재광 유재원
 유재철 유정령 유정인 유정화 유정훈 유지현 유지현 유지호 유진선 유채빈 유혜연 유효영
 유규상 윤기열 윤나라 윤덕로 윤명순 윤미영 윤민화 윤병우 윤병우 윤보름 윤복남 윤석준
 윤석희 윤선목 윤선주 윤성수 윤성운 윤성철 윤세종 윤소정 윤신승 윤영미 윤영순 윤용호
 윤원근 윤원선 윤자영 윤재실 윤재훈 윤정숙 윤정연 윤정향 윤종성 윤지숙 윤지현
 윤진수 윤진호 윤태오 윤해림 윤현상 윤현우 윤혜숙 윤혜영 윤홍식 은탁 은현호 이기연
 이가현 이강균 이강원 이경미 이경민 이경울 이경재 이경준 이경희 이계성 이계수 이계연
 이구 이권열 이규범 이기선 이기연 이길재 이나래 이난영 이남우 이다영 이다혜 이달별
 이대근 이동근 이동연 이동주 이동준 이동혁 이두진 이명재 이문희 이미경 이미란 이미숙
 이미지 이미현 이민경 이민순 이민영 이민재 이민재 이민주 이병권 이병래 이병민 이보운
 이복현 이본영 이봉원 이봉재 이봉준 이봉현 이산희 이상국 이상민 이상봉 이상석 이상수
 이상아 이상언 이상중 이상필 이상희 이서연 이서진 이서진 이석우 이선기 이선미 이선순
 이선웅 이선임 이선희 이성수 이성엽 이성원 이성은 이성진 이성호 이성희 이세라 이세리
 이세린 이세영 이세진 이소담 이소아 이소현 이소영 이소혁 이소희 이송 이송준 이수연
 이수연 이수원 이수철 이승한 이승한 이승훈 이심가는 이아랑 이안소영 이안순 이애린
 이여름 이연순 이연창 이연화 이영근 이영래 이영민 이영주 이영주 이영주 이예찬
 이에한 이용복 이용세 이용우 이용우 이용표 이우승 이우진 이우환 이원규 이원재 이유미
 이유열 이유영 이유진 이유철 이윤구 이윤정 이은 이은숙 이은숙 이은영 이은영 이은영
 이은일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희 이인규 이인복 이인숙 이인호 이일 이장호
 이재명 이재성 이재승 이재승 이재욱 이재한 이재형 이재훈 이정민 이정민 이정민 이정복
 이정언 이정원 이정은 이정은 이정이 이정진 이정호 이정환 이재철 이재호 이종록 이종미
 이종수 이종식 이종훈 이주경 이주연 이주영 이주영 이주창 이주한 이주형 이주희 이준범
 이준범 이준석 이준석 이준수 이준일 이준환 이지나 이지은 이지행 이지행 이지현 이지혜
 이지혜 이지환 이진권 이진만 이진숙 이진용 이진우 이진우 이진주 이찬진 이창국
 이창식 이창형 이창형 이창희 이창희 이채민 이채원 이채현 이철기 이철주 이철희 이총희
 이춘재 이택건 이탄희 이태정 이태정 이한본 이한솔 이한석 이해옥 이항재 이항재
 이현주 이혁재 이현미 이현수 이현숙 이현승 이현정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주 이현진
 이형근 이형근 이형미 이형미 이형석 이형자 이형준 이형직 이혜리 이혜민 이혜영 이혜영
 이해은 이해욱 이해원 이해윤 이해정 이해진 이호식 이호원 이호인 이호재 이호정 이호중
 이호철 이호철 이홍석 이화영 이화정 이화준 이황희 이효경 이효숙 이효정 이효춘 이훈희
 이희경 이희경 이희선 이희섭 이희순 이희승 이희승 이희정 이희찬 이희현 임귀숙 임규원
 임기화 임남규 임대빈 임대원 임상욱 임상원 임선영 임선주 임성룡 임성순 임성호 임세와
 임수경 임수진 임수희 임영미 임영호 임예지 임원범 임은영 임자운 임재만 임재성 임정은
 임정하 임진주 임진홍 임찬현 임채복 임채윤 임통일 임해준 임현목 임혜원 장경욱 장교식
 장낙원 장달리 장도중 장미희 장민주 장민환 장범식 장병호 장보람 장석우 장선영 장세명
 장세현 장승희 장영석 장예림 장욱희 장원 장원택 장유식 장윤경 장윤석 장윤정
 장윤주 장윤주 장윤호 장은경 장은영 장은주 장재영 장정환 장지숙 장철익 장품 장현진
 장혜민 장효정 장훈 장희국 전경태 전덕규 전명호 전민성 전민식 전병규 전상운 전선희
 전성관 전성지 전영록 전용범 전우정 전원진 전은경 전은배 전재우 전정현 전지성 전찬서
 전창률 전해원 전화승 전호숙 정가영 정경민 정계선 정계현 정고은 정관영 정광현 정구진
 정남순 정다정 정다훈 정대성 정대현 정도영 정명준 정명화 정명희 정미나 정미현 정미화
 정민영 정병민 정병삼 정병수 정보라 정서영 정서희 정석중 정선명 정성약국 정성용 정성호
 정성훈 정성훈 정성희 정세진 정소망 정소연 정소연 정수미 정수현 정순형 정아선
 정아영 정아윤 정연선 정연욱 정연주 정영란 정영선 정영신 정용승 정욱도 정원락 정원진
 정유진 정윤경 정윤수 정은령 정은영 정은정 정은희 정인영 정인영 정인홍 정일용 정재건
 정재욱 정재욱 정재필 정재현 정재현 정정국 정정숙 정정진 정정화 정정환 정정환 정제훈

정종호 정주형 정준학 정지연 정지웅 정지원 정지하 정지훈 정진 정진화 정춘석 정한을
 정한중 정행주 정형모 정혜영 정혜전 정혜진 정호진 정화숙 정환엽 정환희 정희경 정희정
 조건희 조경주 조광희 조규식 조기연 조대연 조덕현 조문성 조문성 조모형 조법석 조선영
 조성준 조세현 조수진 조숙현 조순미백탐스 조순옥 조승희 조아라 조아라 조연희 조영관
 조영린 조영선 조영신 조영연 조영현 조영희 조용기 조용수 조용하 조우람 조우영 조원희
 조유경 조윤산 조은미 조은서 조은성 조은진 조은진 조익섭 조재령 조재원 조정현
 조정현 조홍택 조준호 조해린 조현미 조현복 조현주 조현민 조현우 조형순 조혜련 조혜원 조혜주
 조혜진 조홍택 조효민 조효식 조경숙 주경숙 주기영 주선민 주선영 주선하 주수희 주신영 주혜삼
 주영진 주지원 주형진 지박 지선경 지성호 지연 진근태 진다희 진성숙 진양화 진채영
 진형혜 차미령 차민형 차선주 차승주 차승호 차영욱 차용선 차정희 차지훈 차태진 차현미
 차혜령 채성희 채양희 채정석 채희석 천경숙 천만우 천명규 천숙희 천정훈 최가영 최강용
 최강욱 최결 최경숙 최경자 최경호 최계영 최광기 최광훈 최국신 최권행 최규진 최근
 최기림 최기선 최달용 최대호 최대훈 최도영 최문순 최문정 최미영 최민경 최민형 최병선
 최병엽 최보라 최삼미 최서연 최서연 최서훈 최서희 최석봉 최선주 최선호 최성규 최성보
 최성원 최성일 최세현 최소연 최승철 최아람 최연수 최영규 최영재 최영희 최용 최용범
 최용직 최용혁 최용호 최용영 최원근 최원호 최유 최유남 최유리 최유진 최윤수
 최윤영 최윤정 최윤희 최윤희 최은주 최의실 최인선 최인혁 최선규 최준근 최준성 최준우
 최정인 최정임 최정환 최종현 최종현 최종인 최종환 최진규 최창석 최창호 최철기 최혁재
 최지경 최지수 최지영 최지은 최지현 최진영 최진영 최창석 최창호 최철기 최혁재
 최현경 최현오 최현욱 최현진 최형식 최호정 최홍엽 최환택 최효재 최희정 최희정 추은정
 추은혜 추혜윤 표승비 하나영 하성우 하양진 하인숙 하정영 하주희 하준영 하지석 하진경
 하혜빈 하희봉 한경수 한광현 한국영 한기영 한대일 한미미 한민우 한병준 한보경 한상만
 한상미 한상헌 한상희 한선민 한성민 한숙 한승석 한승표 한애라 한연규 한영동 한영주
 한예술 한유걸 한유일 한은희 한이경 한재호 한지수 한지연 한진수 한창건 한창남 한창완
 한창훈 한철웅 한철수 한화숙 한효은 함동호 함영선 허나눔 허나눔 허세진 허오영속 허인회
 허정 허정집 허태정 현다연 현지원 현지현 형두호 형장우 호문혁 호승진 홍경선 홍경화
 홍나영 홍두의 홍민 홍성수 홍성진 홍수정 홍수희 홍순영 홍술기 홍승기 홍승혜 홍아현
 홍여진 홍영 홍완희 홍원표 홍윤선 홍은기 홍정기 홍정아 홍지백 홍지수 홍지은 홍진영
 홍혜선 황가혜 황매화 황미정 황보인구 황성아 황성현 황승욱 황승용 황연재 황예랑 황용기
 황원규 황은경 황의홍 황인이 황재호 황준협 황지현 황지현 황지혜 황진도 황재주 황현

(재)성심수도회 (재)화우공익재단 (주)미래에너지 (주)사이로직 (주)센티널테크놀로지 (주)스페이스2.0
 (주)아레테투자 (주)이레테스트 김·장 법률사무소 노무법인 우광 도봉양말협동조합 법률사무소 용기 법무법인 덕수
 법무법인 재상 법무법인 한누리 법무법인(유) 한결 법무법인(유한) 지평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 박숙란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윤성 법률사무소 사단법인 나눔과이음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로펌 서울지방변호사회 성균관한의원 세탁전문점향기 송실대민주노조
 에이치앤에치네스앤모리츠 주식회사 에이치피프린팅코리아 유한회사 에이캐드 에코네트웍(주) 우영산업(주)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 제일코리아변협 전교조서울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쿼드자산운용(주) 태동정보통신 통발리 주식회사 한국난독증협회 희망연대본부LGB지부 SK염창주유소
 UNHCR IAKL FOUNDATION

※ 후원명단 정리 중에 착오로 누락된 후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2-3675-7740)

공감이 걸어온 길



- 제1회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사업 실시
제1회 공익변호사 한마당 주최
세월호 참사 - 유가족 지원을 위한 변호사 파견, 사망한 민간 잠수사와 기간제 교사를 위한 법률 지원
- 압구정 아파트 경비원 사망 사건의 손해배상청구 승소(1심) 및 아파트 경비원 인권 옹호 활동
정신병원 감금 피해자 대리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리 및 정신 장애인 복지지원법 제정 활동
-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 위헌제청신청 사건,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장애청소년 대상 경찰의 위법수사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 승소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 조사
-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승소(1심)
이주노동자 주거권 개선을 위한 연구 조사 및 법제 개선
삼표동양시멘트 해고 노동자 법률 지원 활동,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전원 복직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미군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청구 항소심 승소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친족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고소대리 사건 항소심 가해자 유죄 판결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 수급자 사망사건 국가배상청구 승소
시간제 돌봄전담사에 대한 차별시정사건 승소
국정원 여직원 정년 차별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성소수자 지지를 이유로한 신학대학원의 학생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승소 ●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
쌍용차 해고 노동자 전원 복직을 위한 법률 지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공동대책위 활동
- 생식능력 제거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허가
화성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책위원회 활동(~2024)
신장장애인 부당해고 사건 행정소송 승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활동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법인설립불허 행정심판 청구 인용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대한민국 2~3차 심의
유엔 국가별인권상황 정기 검토(UPR) 사무국 활동
돌봄노동자 법률 지원
쪽방주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활동과
홀리스 차별 인권위 진정

2020 2021 2022 2023 2024

국내 첫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판결(2심)
외국인 무기한 구금 허용하는 출입국관리법 헌법불합치 결정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정신장애인 우체국 금융거래 제한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 승소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구 건설근로자법 위헌 결정
여성홀리스 강간치사 사건 피해자 유족 조력 ●

한신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 법률지원단 활동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TF 활동
E-6 예술홍행비자 악용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창립 20주년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주년 기념 자료집

발행일

2024년 4월

발행인

김이수

발행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29-6 (원서동, 북촌창우극장 3층)
TEL 02-3675-7740 FAX 02-3675-7742
www.kpil.org

디자인

동방기획 TEL 02-2277-0365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희망을 전해 주세요.

공감은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장애인, 난민, 이주여성, 홀리스, 성소수자 등
세상 주변부에 선 사람들의 삶,
바로 그 자리에 뛰어가
법을 말하고 법을 바꾸고자 합니다.

공감은 희망을 그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
잠시 잃었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 희망을 응원해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희망을 전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우리 이웃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 계좌 안내

하나은행 162-910015-36804
예금주 :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정기 후원 신청

홈페이지 : www.kpil.org (CMS 납부 신청 가능)
이메일 : gonggam@gmail.com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공감에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연말정산시 비용 인정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1년 동안의 기부액을 합산하여 이듬해 1월 중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공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별도 발행도 가능합니다.
- 공감 기부회원께는 공감이 발행하는 연간보고서와 온라인 뉴스레터를 보내 드립니다.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 대체 기부단체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공감에 기부할 경우, 공익활동을 인정 받습니다.(3만원/1시간)



바라던
바라던
바라는 20
20th ANNIVERSARY

주소

03058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29-6 (원서동, 북촌창우극장 3층)

전화

02. 3675. 7740

팩스

02. 3675. 7742

이메일

gonggam@gmail.com

홈페이지

www.kpil.org